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동북아 6대 도시 서울, 동경, 홍콩, 북경, 상해, 싱가포르 비교 분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노무라종합연구소 편

서 문

최근 중국경제의 급성장으로 동북아의 경제규모는 전세계 경제규모의 약 20%까지 증가하였다. 향후 20년 후에는 전세계 경제규모의 30%, 전세계 물동량의 40%를 동북아에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 중국, 일본 주도의 동북아시아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0년 이내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목표로 다시 한 번 도약을 하고자 각계의 중지를 모으고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올 초부터 동북아에서 서울의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노무라종합연구소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번 평가작업은 처음으로 서울의 국제경쟁력을 보다 정확히 가늠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지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서울의 위상 및 경쟁력 강화는 서울이 동북아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으로써, 이는 서울의 과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과제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서울시가 R&D, 금융, 물류, 컨벤션 등 각 부문에서 거점도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목표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발간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노무라종합연구소와 우리 연구원의 연구진, 그리고 각종 회의에 참여하여 많은 도움 말씀을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3년 12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백용호

차 례

서문 • 5

제1장 21세기 서울, 지향점은 어디인가? ————— 9

1. 전략적 목표 • 11
2. 평가지표 • 15

제2장 서울의 시장환경 ————— 17

1. 서울의 강점 • 19
2. 서울의 약점 • 22
3. 전략과제 • 38

제3장 R&D 중심지로서의 경쟁력 ————— 45

1. 동북아시아의 R&D 중심지는? • 47
2. 시장요소 • 48
3. 인적자원 • 51
4. 정부정책 • 53
5. 사업환경 • 54
6. 전략과제 • 55

제4장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 ————— 59

1. 동북아시아의 금융중심지는? • 61
2. 시장요소 • 62
3. 인적자원 • 68
4. 정부정책 • 69
5. 사업환경 • 71
6. 전략과제 • 72

제5장 물류중심지로서의 경쟁력 ————— 77

1.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심지는? • 79
2. 시장요소 • 80
3. 사업환경 • 82
4. 전략과제 • 83

제6장 컨벤션중심지로서의 경쟁력 ————— 87

1. 동북아시아의 컨벤션 중심지는? • 89
2. 시장요소 • 90
3. 인적자원 • 92
4. 생활의 질 • 93
5. 전략과제 • 95

제7장 전략과 대책 ————— 99

1. 전략 구상 • 101
2. 주요 과제와 대책 • 104

정책 토론 ————— 115

■ 용어 정리 • 139

제1장

21세기 서울, 지향점은 어디인가?

1. 전략적 목표

20세기 말 이후, 전세계적으로 경제시스템은 더욱 개방적이고 동적인 시스템으로 변모되어가고 있다. 한편에서는 생산과 서비스를 둘러싼 글로벌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첨단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을 매개로 하여 경제활동의 국제적 분산과 집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시스템의 급속한 변화로 말미암아 한 때 번영을 구가하던 도시가 일순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경쟁의 무대 뒤에 가려져 있던 도시가 전면에 급부상하는 도시의 흥망과 부침이 거듭되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하고 동적인 경제환경에서는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도시목표라 할 수 있다. 실제 많은 도시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노력은 기업, 인력, 자원, 금융이 활발하게 이동하는 흐름의 네트워크에서 결절을 의미하는, 국제적 중심성을 획득하려는 도시간 경쟁으로 집약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고차서비스 기능, 우수 전문인력과 국제적 이벤트를 유치함으로써 경제·정치·문화, 교통·통신의 중심지가 되려는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제적 중심성 획득이 항상 가능한 것도, 또 수월한 일도 아니다. 국제경제 시스템은 물론, 주변 도시의 여건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확실하고 동적인 경제환경에서는 더욱이 그러하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런 경쟁환경에서 국제적 중심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전략의 적소와 틈새를 탐색하고, 그것을 일관되게 추구해가는 전략적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위치와 여건, 잠재력을 상세히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최근 많은 도시에서, 그리고 관련 전문기관들에 의해 각 도시의 현재적 위

상을 탐색·평가하고, 그 우열을 가리는 일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본 연구는 날로 세계화되고 있는 서울이 동북아의 경제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전략적 적소를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가 처한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과 수많은 목표, 전략 등을 감안해볼 때, 우선 서울시가 지향할 수 있는 혹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울시가 지향해야 할 목표 여하에 따라 지표설정이나 분석결과의 시사점, 전략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도시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목표나 지향점을 탐색하는 데는 다양한 기준이 선택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두 개의 거시적 기준을 가지고 포지셔닝 맵(Positioning Map)을 도출하였다.

우선 경제활동의 지배적 기준인 ‘시장(market)’과 ‘산업(industry)’을 양

〈표 1-1〉 조사의 기준 및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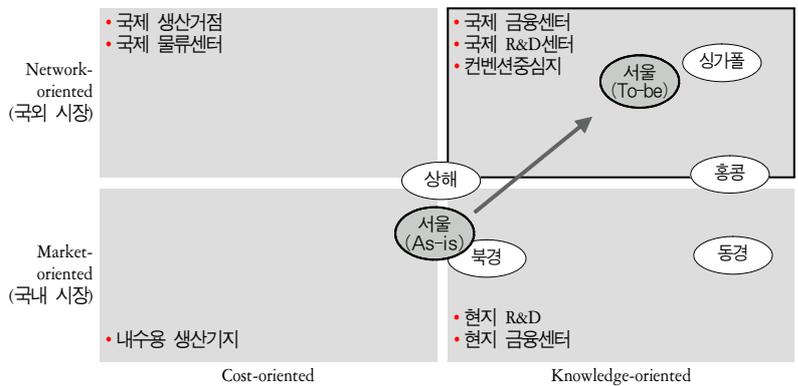
기준 및 속성	대표도시	중요시되는 지표
Market 중심 (국내시장 중심)	동경 북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 교통, 통신, 물류 • 국내시장 수요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규모 및 추이
Network 지향 (국제시장 중심)	싱가폴 암스테르담 홍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적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화물처리규모/항만화물처리규모, 도심부 공항, 항만까지의 거리 - 논스톱으로 접근 가능한 도시수, 주요 도시별 일주일간 항공회수 - 주요 지점별 오피스 임대료, 통신인프라, 컨벤션센터, 호텔 개수 • Country Risk, 정부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위협도, 정치적 안정성, 국가정책
비용지향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비용, 사업지원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부지 가격,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 인적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가 있는 업체비율, 생산인력의 고용/해고 용이성 - 숙련인력의 구득용이성, 생산인력 인건비
지식 및 기술지향	싱가폴 실리콘밸리 하노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별 국내전문인력의 기술수준, 업무수행능력 • 시장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특성, 신제품 수용도, 제품교환주기 • 사업지원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조달조건, 대사업자서비스(법률/회계/시장조사/컨설팅사업체 수)

대 축으로 하여, 전자는 다시 국제화 여부를 기준으로 국내시장지향과 해외시장지향으로, 후자는 과거 산업시스템의 지배적 원리였던 비용지향과 새로운 원리로 부상하고 있는 지식지향으로 구분하였다. 실제 이러한 기준과 유형과 관련하여, 현재 국제적으로 알려진 도시들이 보이는 기준과 속성은 <표 1-1>에 잘 요약되어 있다. 가령 국내시장지향의 동경과 북경, 네트워크 지향을 보이는 싱가포르, 암스테르담, 홍콩 등이 바로 그러하다.

따라서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각 도시들은 <그림 1-1>의 포지셔닝 맵과 같이 자신의 시장 및 산업적 특성에 따라 이들 네 영역, 즉 국내시장·코스트지향, 국내시장·지식지향, 네트워크·코스트지향, 네트워크·지식지향 중 어느 하나에 자리매김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포지셔닝 맵은 현재적 위상뿐만 아니라 시장과 산업의 발전을 통해 향후 지향해야 할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시장지향이면서 코스트지향과 지식지향의 중간에 위치하는 있는 ‘현재의 서울(As-Is)’은 향후 네트워크지향과 지식지향성을 지닌 ‘미래의 서울(To-Be)’로의 도약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의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위상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는

<그림 1-2> 아시아 6개 도시의 국제도시로서의 포지셔닝 맵(Positioning Map)



〈표 1-2〉 분야별 조사지표

분류	시장환경	R&D	금융	물류	컨벤션	
시장요소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내 다국적 기업 공장수 • 자국기업의 국제 경쟁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계 R&D 센터 입지현황 • 수출품 중 하이테크 제품비율 • 등록특허수/주민당 특허 수 • GRDP 대비 총 연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금융자산규모 • 기업여신규모 • 주식, 채권발행규모 • 국제채권 발행액수 • 금융업체 진출 현황 • 중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 수 • FDI • GDP • 기관투자자의 금융 자산 규모 • M&A시장 활성화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벤션 개최빈도 • 공항이용 외국인 입국자 수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시장의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업체 아시아 거점현황 	
인적자원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여가능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대비 연구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 기획자 • 동시통역자 수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인적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자와 연구자 기초연구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 전문가 풀 • 국제적 인력 양성 기관 존재 유무 		
정부정책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세제의 인센티브 • 자본/금융 지원 • 물리적 지원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정도 • 회계투명성 • 외환관리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재산권 관리 정책 • 비즈니스에서 인맥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관련 규제 • 중앙은행의 정책 적정성 		
사업환경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편으로 접근 가능한 도시 수 • 주요 공항별 항공편 수 • 공항까지 접근성 • 특급 호텔 수 • 도로/통신 인프라 • 대사업자 서비스 • 자금조달조건 •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피스 렌트 비용 • 국제금융기관의 입지 • 외화보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물류 처리 규모 • 국제선 승객 수 • 항만물류 처리 규모 • 항만 접근성 • 물류비 (CIF/FOB 비율)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성 지표 • 도시위험도 지표 • 국가신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에서 인맥 중요성 			
생활의 질	정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학교 수 • 범죄율 • 대기오염도 				
	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안전성 •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 • 외국기업에 대한 태도 • 외국인 출입국의 용이성 • 행정 서비스의 영어공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취업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 문화시설수준 • 생활정보 액세스 • 쇼핑의 매력 • 외국인 커뮤니티의 활성화 • 도시기반시설의 외국인 표기정도

유사한 위치에 처한 상해나 북경과의 치열한 경쟁도 불가피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현재의 경쟁력과 미래의 전략적 지향점은 이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교통, 통신, 물류시설과 같은 물적 인프라는 물론, 인적요소, 시장특성, 사업지원환경, 나아가 정부정책 요소 등의 우위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조건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표설정과 측정은 이들 도시경쟁력의 조건, 전략적 목표달성의 조건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평가지표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동북아 중심도시로서 서울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사지표의 설정과 측정, 분석과 평가가 필수적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노무라종합연구소 공동으로 내부 검토와 사내 인터뷰, 기업 인터뷰 등을 거쳐 조사 방향을 설정하였다.

조사지표는 타겟으로 도출된 연구개발, 금융, 물류, 컨벤션에 대해 시장요소, 인적자원, 정부정책, 사업환경, 생활의 질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이들 지표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로 구분될 수 있다. 정량적 지표는 각종 통계나 2차 문헌조사를 통해 계량적인 측정이 가능한 지표이다. 그러나 그 특성상 정성적인 형태를 취하는 정성적 지표의 경우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10점 척도)와 NRI 전문가들에 의한 서베이(5점 척도), 기타 기존 조사자료의 서베이 결과를 활용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제2장 서울의 시장환경

1 서울의 강점

2 서울의 약점

3 전략과제

1. 서울의 강점

1) 시장요소

_ 자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서울은 경쟁력 있는 한국 기업들의 본거지이다. Forbes의 Global 2000 List에 포함된 기업들의 국가별 분포를 보면, 한국 기업은 모두 55개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은 회사를 올려놓고 있다. 서울이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들 경쟁력 있는 국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 세계 2,000대 기업 중 자국기업의 수(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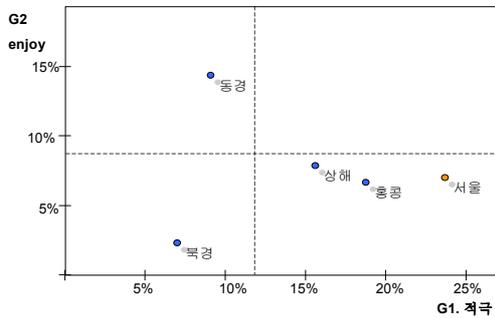
출처: www.forbes.com

_ 소비자 특성

하쿠호도에서 전세계 25개 도시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소비자들은 혁신과 자기실현을 지향하는 특성(적극, Enjoy)이 매우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적으로도 한국시장은 일본, 타이완, 홍콩과 함께 고급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제품의 질에 대한 소비자 요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한국은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시장구조여서 동남아에 대한 이미지, 아이디어 공

급저로서 의미가 크며, 한국에서 개발된 제품이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다.

〈그림 2-2〉 혁신지향 및 자기실현 지향 소비자 유형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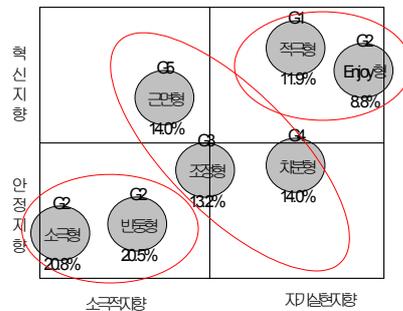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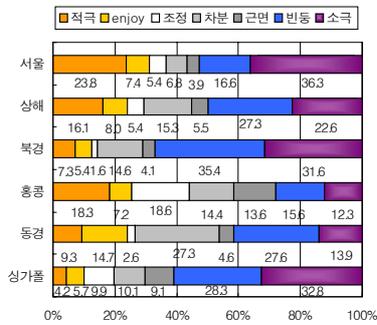


G1 적극 Type—여러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행동. 타인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변을 끌어가는 리더 지향도 강하게 나타나는 타입

G2 Enjoy Type—유행에 민감,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 장래보다는 현재를 만끽하려는 타입. 늘 자극을 추구하고, 새로운 상품도 충동적으로 사는 경향이 있음

주: 점선은 조사 대상자 전체 평균을 나타냄
출처: 하쿠호도, 전세계 25개 도시 16,000명 대상 조사결과

〈참고〉 소비자 특성



- G1: 적극(11.9%):**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행동. 타인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변을 끌어가는 리더 지향도 강하게 나타나는 타입
- G2: Enjoy(8.8%):** 유행에 민감,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 장래보다는 현재를 만끽하려는 타입. 늘 자극을 추구하고, 새로운 상품도 충동적으로 사는 경향이 있음
- G3: 조정(13.2%):** 고독을 싫어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중시함. 단, 그다지 외향적이지 않으며, 자기에 자신감이 있어 타인과 대등하게 사귀려는 지향이 강함
- G4: 차분(14.0%):** 풍요롭고 평화로우며, 가족과 주위의 사람과 조화롭고 여유있는 생활을 바람. 스스로 쾌적함을 추구하는 현재 긍정과. 낙천적이어서, 바둥거리며, 상승하려는 성향은 별로 없으며, 마찰을 회피하고, 조화를 중함
- G5: 근면(14.0%):** 성실하고 꼼꼼하며, 근면한 노력가임. 남을 위해서라면 자기희생도 마다하지 않음. 자신에게 엄하고, 전통적이며, 금욕적인(Stoic) 타입임. 반면, 늘리는 마음이 적고, 의무감이 강함
- G6: 빈둥(20.5%):**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타입임. 향상심이나 적극성이 낮고, 스스

20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로 노력하지 않고 외부 영향을 많이 받음. 유행에 대한 관심도 낮은 편이고, 마음 편히 살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타입

G7: **소극(20.8%)**: 자기실현지향이 특히 낮으며, 생활의 변화나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낮음. 인간관계나 주위로부터 자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별로 관심없는 타입. 집안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소극적인 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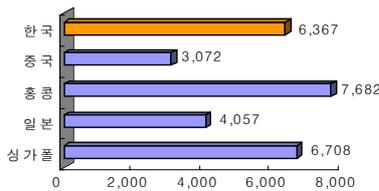
출처: 하쿠호도, 전세계 25개 도시 16,000명 대상 조사결과 <http://www.hakuhodo.co.jp/news/pdf/20030528.pdf>

2) 인적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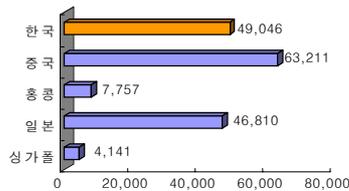
_ 인적자원의 국제경험(해외 인적 네트워크)

서울을 포함하여 한국은 국제경험을 가진 인력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는 기업 경영진의 국제경험에 대한 IMD의 조사에서도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어 세 번째로 해외경험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 해외 인적 네트워크의 잠재적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유학생의 수에서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으며, 게다가 중국과 달리 대부분의 해외경험 인력은 서울에서 자리를 잡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2-3〉 상급 경영진의 국제 경험이 충분한 정도(서베이, 1~10점, 2003)



〈그림 2-4〉 미국 유학생 수(2001/2002) (단위: 명)



출처: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

3) 생활의 질

_ 도시위험도지표(안전성)

Munich Re Group에서 조사한 자연재해 위험도 조사에서 서울은 자연재해 위험도가 싱가포르 다음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해(Haz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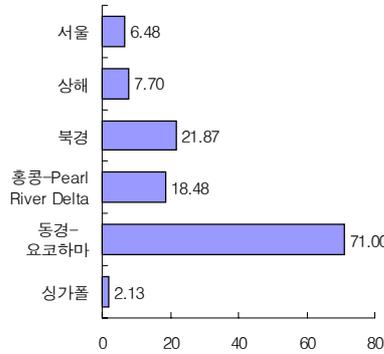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은 싱가포르 다음으로 안전한 지역이지만, 재해취약성(Vulnerability)에 있어서는 북경 다음으로 취약하여 재해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도시권 위험도(2002)

도시권	Total Risk Index	Risk Index Components		
		Hazard	Vulnerability	Exposed values
서울	15.0	0.9	7.2	2.2
상해	13.0	1.1	7.0	1.7
북경	15.0	2.7	8.1	0.7
홍콩-Pearl River Delta	41.0	2.8	6.6	2.2
동경-요코하마	710.0	10.0	7.1	10.0
싱가폴	3.5	0.3	7.1	1.9

출처: Munich Re Group, Natural Catastrophes 2002

〈그림 2-5〉 도시권 위험도(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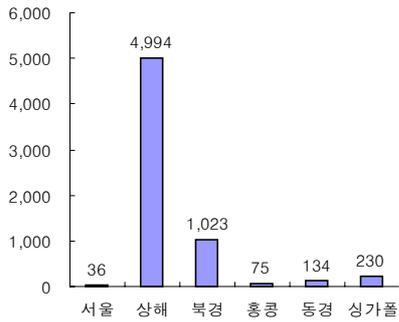
2. 서울의 약점

1) 시장요소

_ 수도권 내 외국기업 생산기지의 수

생산기지는 다국적기업의 R&D 센터 및 물류센터, 지역본사(RHQ)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서울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 외국기업의 공장 수가 경쟁 도시들에 비해 극히 적으며, 중국의 도시들뿐만 아니라 도시국가인 홍콩, 싱가포르와 비교해서도 외국계 생산기지 수가 적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삼성, LG와 같은 국내 대기업 공장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유인요소로 삼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2-6〉 도시인근 외자계 기업의 공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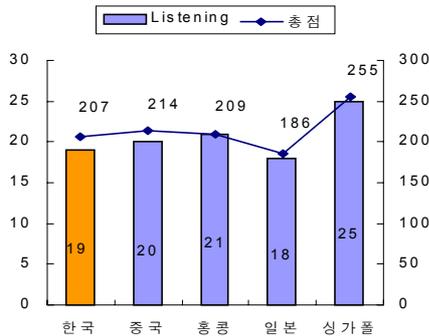
출처:
 서울: 수도권(경기도)에 입지하고 있는 외국기업 공장 수, www.invest.go.kr
 상해: Enterprises with Investment from Hongkong, Macao, and Taiwan + Foreign-Invested Enterprises, 상해대도시권, 『상해통계연감』
 북경: Foreign Funded Industrial Enterprises, 북경대도시권, 『북경통계연감』
 홍콩: 홍콩 내 제조업 기업 수, <http://www.investhk.gov.hk/nfsmdsittxkj1oyimrx1ga55/keystatic1.aspx?id=147&code=KEYSINVEST>
 동경: 동경 및 인근 현(사이타마, 카나가와, 치바)의 외국계 공장 수 <http://www.kanto.meti.go.jp/seisaku/databook/sangyodatae/foreignowned/tokyo.html>
 싱가포르: 싱가포르 공업단지에 진출해 있는 외국투자 공장 및 합작공장, <http://www.jtc.gov.sg/Corporate/reports-publications/jtc+official+statistics+2003v1.pdf>

2) 인적자원

_ 영어사용능력

외국인이 서울을 국제비즈니스 거점으로 삼는 데 있어서 다른 장애요소의 하나는 서울 시민들의 영어구사능력이다. 가령, 한국인의 TOEFL 평균 성적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어느 나라보다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영어가 공용어가 되어 있는 싱가포르와 홍콩을 제외하면 중국의 도시들과 서울, 일본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관

〈그림 2-7〉 국별 TOEFL 평균성적



출처: ETS, TOEFL test and score data summary

단된다. 물론 거대한 국내 시장이 국제도시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는 동경이나 상해, 북경과 비교하여, 서울이 처해 있는 입장은 크게 다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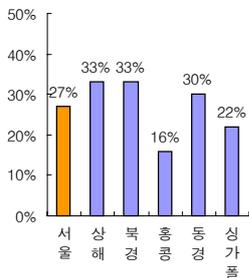
3) 정부정책

_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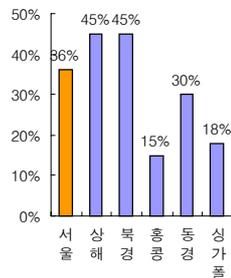
세금은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이 진출을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요건 중 하나이지만, 한국은 경쟁 도시들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약한 편이다. 법인세의 경우, 서울은 27%로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세율이 낮지만, 홍콩(16%)과 싱가포르(22%)와 같은 선두 그룹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 게다가 외국기업이 국내에 입지 할 때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소 달라지기는 하지만, 연봉 1억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울의 세율은 홍콩(15%)이나 싱가포르(18%)은 물론, 동경(30%)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부가가치세 역시 서울은 10%로 홍콩(0%), 싱가포르(3%)뿐만 아니라 동경(5%)보다도 높다.

한편, 한국은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체계가 복잡해 경쟁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우선 법인세의 경우 입주지역에 따라 공제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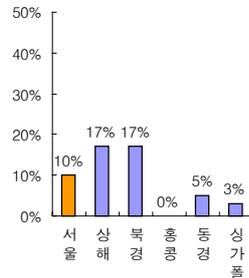
〈그림 2-8〉 법인세



〈그림 2-9〉 소득세



〈그림 2-10〉 부가가치세



〈표 2-2〉 서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
서울	27%**	36%***	10%	* 연봉 1억 기준 ** 과세표준 1억 미만은 15%
상해	33%	45%	17%	*** 9%, 18%, 27%, 36%의 누진세율
북경	33%	45%	17%	**** 2%, 7%, 15%, 17%의 4단계
홍콩	16%	15%****	0%	***** 10%, 20%, 30%, 37%
동경	30%	30%*****	5%	***** 4%~22%
싱가폴	22%	18%*****	3%	출처: 서울은 국세청, 상해, 북경, 홍콩, 싱가폴은 아시아 주요도시/지역의 투자관련 코스트 비교

과 기간이 달라지며, 지역 내에서도 업종 조건이 복잡하다. 중국은 한국과 유사한 복잡한 법인세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홍콩은 여러 공제 요건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입주지역이나 업종이 아닌 지출활동 항목에 대한 공제를 하고 있다. 일본과 싱가폴은 단순한 법인세 제도를 갖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한국은 해외근무수당 지급 유무에 따라 공제 요건이 다르며, 기술자의 경우 면제 대상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 외의 국가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과세범위나 세율이 다르지만, 외국인에 대한 공제요건은 홍콩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없다(홍콩의 경우 외국인이 60일 이내 체제로 얻은 수입은 급여소득세 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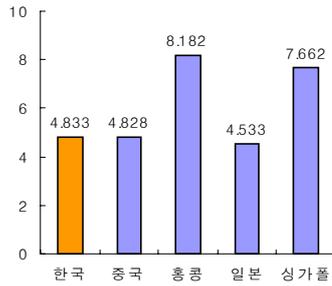
_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정도(Equal Opportunity 보장)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외국인들이 느끼는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정도이다. IMD의 2003년 평가결과에 따르면, 외국 기업에 대한 법적 차별 정도는 업종을 막론하고 한국이 아시아 경쟁 도시 중 최하위이고, 공공부분의 사업 발주에서도 한국은 일본, 중국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림 2-11〉 국내 법률에 의해 외국인 회사가 차별을 받지 않는 정도(서베이, 1~10점, 2003)



〈그림 2-12〉 공공부문의 발주계약 참여가 외국 입찰자에게 공개되는 정도(서베이, 1~10점,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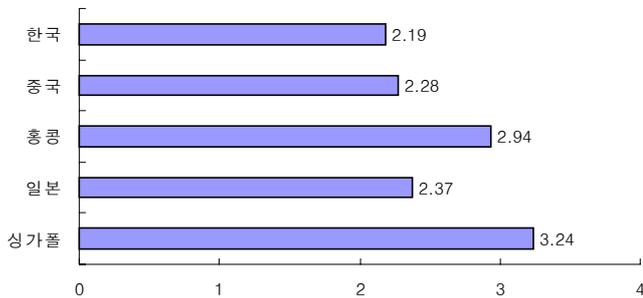
출처: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회계처리방식

회계의 불투명성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2002년 PwC(PricewaterhouseCoopers)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아시아권 경쟁 도시와 비교하여 회계 불투명성이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기업의 회계규정 준수 여부, 기업 현금흐름 정보획득, 기업 레버리지에 대한 정보획득 등에서 불투명성이 개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한 대로 싱가포르가 가장 회계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림 2-13〉 ACCOUNTING OPACITY(2002)



출처: PwC

홍콩, 일본, 중국 모두 한국보다는 회계 투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국의 평가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_ 외국통화 관리정책(자본이동의 자유도)

외환 거래에 있어 홍콩과 싱가포르의 제한이 없다. 동경도 일정액 이상의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외환 거래는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몇몇 신고 및 허가 사항이 아직 유지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느끼는 자본이동의 자유도는 동경, 싱가포르, 홍콩에 크게 뒤쳐지고 있다.

〈표 2-3〉 자본이동의 자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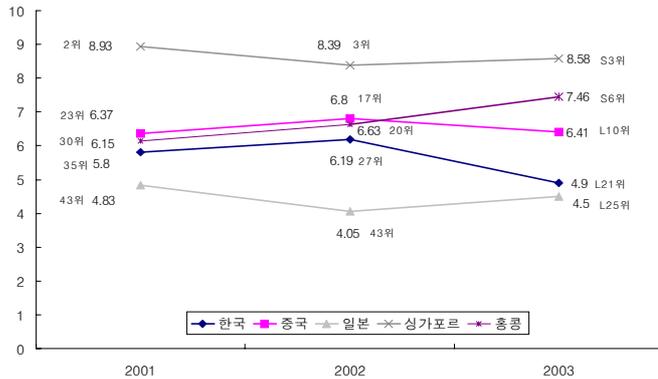
	자 본 거 래
한국	1. 외환거래법에 따르는 신고 및 허가 사항이 있음 2.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전의 대차계약 또는 채무의 보증계약 3. 파생 금융거래 또는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4. 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것에 관한 권리의 취득 6.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담보 제공 및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권의 대어
중국	원칙적으로 금지이며, 다양한 관련 규정을 통해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식을 취함
동경	1. 외환송금: 유효한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본국송금은 무제한 허용되며, 대장성과 동경은행에 제출하는 간단한 형태의 서식만 요구되나, 500만엔 이상의 금액은 특별보고 필요 2. 투자와 함께 투자원금의 해외송금도 보장되며, 송금자금은 본국 송금시점이나 이전시점의 환율로 교환 가능 3. 차관도입 및 상환: 승인을 받는 모든 차관에 대해서는 차관이자 및 원금상환에 대해 제한이 없으나, 500만엔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고 4. 무역대금 규제: 수출판매로 획득하는 외환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연기조치에 대해서는 일본은행을 거쳐 대장성대신의 승인 필요
싱가폴	제한 없음. 다만, 싱가포르달러(S달러)의 비국제화 정책에 의해, S달러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 있음
홍콩	제한 없음

출처: www.jetro.go.jp

세금 면에서의 인센티브/ 자본 및 금융 관련 지원/물리적 지원

IMD의 2003년 평가에 따르면 외자유치를 위한 투자인센티브 측면에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 최하위로 평가받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투자인센티브가 가장 매력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금관련 지표에서 한국보다 크게 뒤지던 중국도 투자인센티브에 대해서 한국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림 2-14〉 투자인센티브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정도



출처: IMD, 「세계경쟁력 평가지표」, 2001~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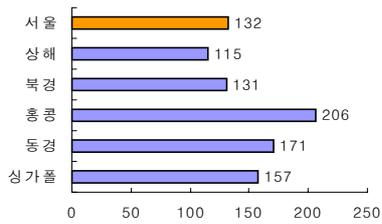
4) 사업환경

항공편으로 접근가능한 도시 수/ 주요 도시행 항공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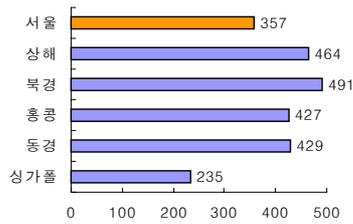
입지상 동북아 중심지라는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제도시로서의 필수 조건인 항공 연결 도시 수에서 서울은 아직 홍콩이나 동경, 싱가포르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

연결 도시 수에 있어서는 홍콩의 경쟁력이 압도적이며, 동북아에서는 동경의 경쟁력이 가장 높다. 한편, 비교 대상 6개 도시들의 항공편 수를 보면, 국내선 편수가 많은 상해, 북경을 제외하면 동경과 홍콩의 연결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5〉 항공편으로 연결되는 도시 수



〈그림 2-16〉 주요 도시행 항공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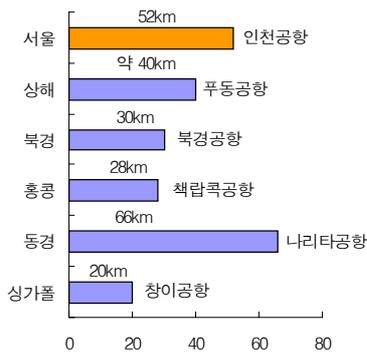


출처: 각 도시의 공항 홈페이지

도심부에서 공항까지의 접근성

거리 및 접근 수단의 측면에서 볼 때, 도심부에서 공항까지의 접근성은 서울이 가장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경쟁 도시를 중 동경을 제외한 타 도시에 비해 공항과의 거리가 가장 먼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항 접근수단이 도로에 국한되어 있어서, 경쟁 도시들에 비해 공항까지 소요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림 2-17〉 도심에서 공항까지의 거리



출처: 『에어포트핸드북』, 2002

〈표 2-4〉 도심에서 공항까지의 소요시간 및 요금

도시	교통수단	소요시간	요금(원)
서울	택시	60분	36,000
	공항버스	60~100분	6,500~12,000
북경	택시	40~50분	10,434~11,844
	공항버스	-	2,397
상해	택시	50분	21,150
	공항버스	50~90분	4,230
홍콩	택시	-	52,150
	공항버스	-	2,533~6,705
	고속철도	23분	13,410
동경	택시	60~120분	220,000~250,000
	공항버스	60~80분	30,000
	고속철도	60분	31,400
싱가폴	택시	20~30분	15,364
	공항버스	-	3,340

출처: 각 공항 홈페이지, 항공사 홈페이지

특급(5Star) 호텔의 수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좌우하는 중요한 인프라 가운데 하나가 특급 호텔이다. 특급 호텔은 비즈니스 출장자를 위한 숙박과 업무 및 미팅공간, 그리고 컨벤션의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제 업무 도시로서 매우 중요한 인프라이다. 비즈니스 거점에 필요한 특급 호텔의 수는 동경의 1/3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경쟁 도시 중 서울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18〉 특급(5 Star) 호텔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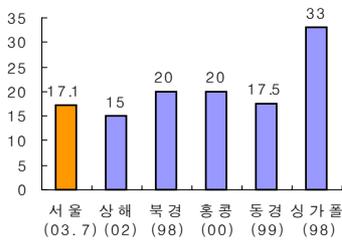


출처: 한국관광호텔업협회, www.planetgypsy.com, worldhotel-center.com의 list를 재정리

도로/통신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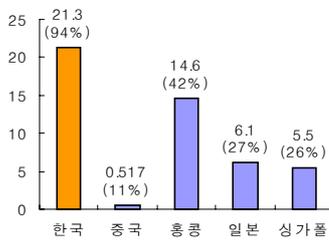
공공시설의 인프라 역시 중요한 요건이다. 차량 평균속도에 있어서는 서울이 경쟁 도시에 비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그림 2-19〉 차량 평균속도(km/h)



〈그림 2-20〉 Broadband 가입자(2002)

(인구 100명당 수, 총 인터넷 사용자 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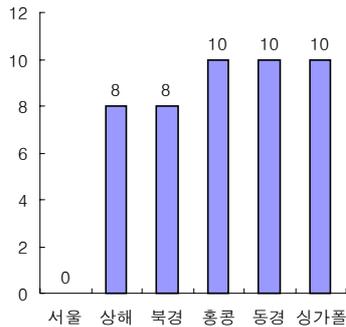
도시명	기준	출처
서울	도심, 오전 7~9시	동아일보
상해	도심, Peak Hour	www.eastday.com
북경	도심	CICETE
홍콩	Hong Kong Island, Peak Hour	www.info.gov.hk
동경	도심	FY1999 Traffic Census
싱가폴	-	www.futurenet.org

나 통신, 특히 브로드밴드 인프라의 경우 한국이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_ 대사업자 서비스(법률/회계/컨설팅) 수행하는 다국적기업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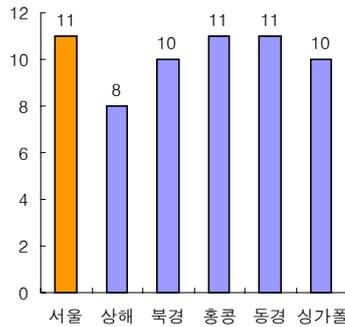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 회계, 컨설팅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회사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수 다국적 법률 회사 및 컨설팅 회사(회계법인 포함)의 도시별 진출 현황에 비추어볼 때, 한국은 법률시장의 미개방으로 말미암아 외국계 법률회사의 진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림 2-21〉 주요 대형 로펌의 각 도시 진출 현황



*주요 로펌
Clifford Chance/ Jones, Day, Reavis & Pogue/
Baker & McKenzie/ Skadden, Arps, Slate, Meager
& Florn/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inklaters/
Allen & Overy/ Latham & Watkins/ Sidley,
Austin, Brown & Wood/ White & Case

〈그림 2-22〉 주요 컨설팅 업체의 각 도시 진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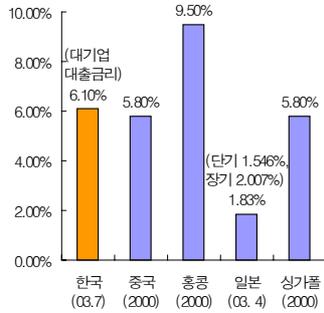


*주요 컨설팅 업체(회계, 경영, 시스템 포함)
전략계: Mckinsey/ BCG/ Bain/ Monitor/ Booz
Allen Hamilton/ A. T. Kearney
회계 및 IT계: Accenture/ PwC/ Deloitte/ KPMG/
E&Y

자금조달조건(대출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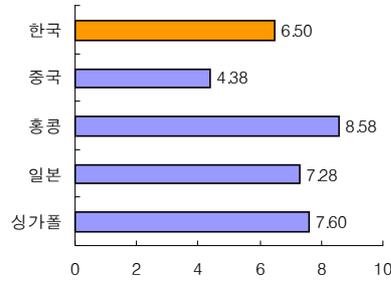
2000년 현재 대출 금리는 한국이 홍콩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에 관한 IMD의 조사에서도 홍콩, 싱가포르, 일본에 비해 한국은 제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3〉 대출금리(2000)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금융경제통계월보, 한국은행

〈그림 2-24〉 국내 자본시장접근에 외국기업이 제한받지 않는 정도(서베이, 1~10점,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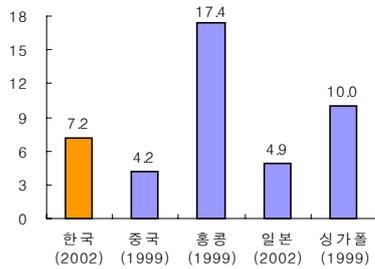


출처: IMD

벤처캐피탈 규모

벤처캐피탈의 규모도 금융시장 및 R&D 센터로서의 발전을 위한 중요

〈그림 2-25〉 벤처캐피탈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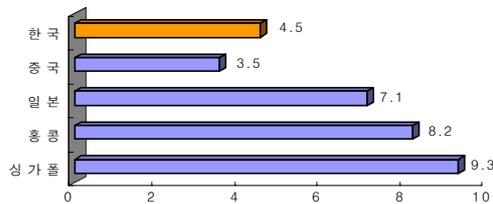
출처: www.venturevalley.co.kr, The 2001 Guide to Venture Capital in Asia, 벤처캐피탈투자동향조사.
 * 조사방법: 2002년 창업투자회사는 총 1,460개 업체에 5,652억 원을 투자함. 신기술금융사의 3/4분기 투자액이 2,500억 원 수준(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공)임을 감안해, 한국의 전체 벤처캐피탈 투자규모를 8,500여 억 원 수준으로 추정함

한 조건이다. 각 지역별 벤처캐피털 규모는 홍콩이 17.4억 달러로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가 10억 달러 수준이다. 한국은 7.2억 달러로 아직 벤처캐피털이 미성숙한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규모가 큰 편이다.

투명성지표

사회 전반적인 부패정도에 대한 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평가에 의하면, 한국은 국가 투명성지표(부패정도)가 전세계 40위로, 중국(59위)과 함께 아시아 경쟁 도시 가운데 투명성이 가장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그림 2-26〉 CPI(부패지수,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2)



〈표 2-5〉 CPI(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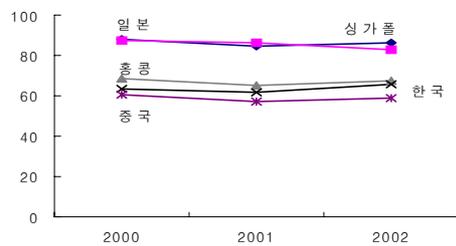
국가	Rank	CPI 2002 Score
한국	40	4.5
중국	59	3.5
일본	20	7.1
홍콩	14	8.2
싱가포르	5	9.3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가신용도(신용등급)

싱가포르와 일본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

〈그림 2-27〉 국가신용등급(2000~2002)



〈표 2-6〉 국가신용등급

	2000	2001	2002
싱가포르	87.8	84.8	86.1
일본	87.7	86.2	82.7
홍콩	68.3	65.2	67.7
한국	63.3	61.7	65.6
중국	60.6	57.4	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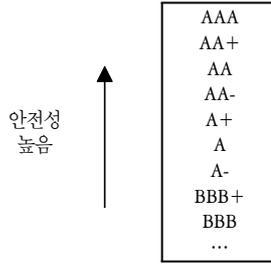
출처: Institutional Investor

〈표 2-7〉 국가신용등급(2002)

도시	신용등급
싱가폴	AAA
일본	AA-
홍콩	A+
한국	A-
중국	BBB

출처: S&P

〈표 2-8〉 S&P의 신용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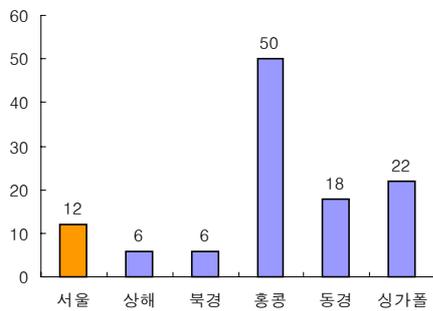
와 비교하여 한국은 중국보다는 신용등급이 높으나,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서는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생활의 질

_ 외국인학교의 수

외국인이 원활한 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는 것 중 하나가 교육환경이다. 서울의 경우 상해나 북경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홍콩, 싱가포르 및 동경에 비해서는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

〈그림 2-28〉 국제학교 재단 수(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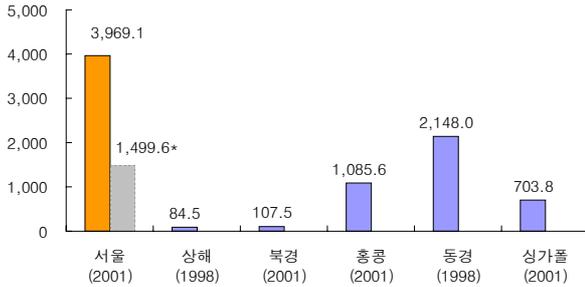


출처: The Education Project Asia

범죄율

서울의 치안상황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쟁 도시들과 비교하였을 때, 서울은 인구대비 범죄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해와 북경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경과 홍콩의 범죄율도 서울만큼 높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9〉 인구 10만 명당 범죄건수



주: *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범죄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서울의 인구 10만 명당 범죄건수는 1,499.6으로 높은 수준임
출처: 서울-서울지방경찰청; 상해-Shanghai on Internet; 북경-『북경통계연감』; 홍콩·싱가폴-Interpol; 동경-동경도 경시청

〈표 2-9〉 대기오염도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부유입자	기준기시	출처
서울	0.005ppm	0.036ppm	0.071(mg/cu.m)	2001	서울시
상해	0.043(mg/cu.m)	0.063(mg/cu.m)	0.100(mg/cu.m)	2001	『상해통계연감』
북경	0.064(mg/cu.m)	0.071(mg/cu.m)	0.165(mg/cu.m)		『북경통계연감』
홍콩	0.018(mg/cu.m)	0.064(mg/cu.m)	0.053(mg/cu.m)	2001	China Year Book
동경	0.003ppm	0.035ppm	0.029(mg/cu.m)	2002.04	『동경도통계연감』
싱가폴	0.020ppm	0.030ppm	-	1995	World Development Indicator

대기오염도

대기오염도는 상해와 북경 등 중국의 도시들이 특히 심각한 편이며, 서울은 중간 정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질소와 부유입자(미세먼

지) 등 선진국형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위한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경의 경우 이산화질소 총량규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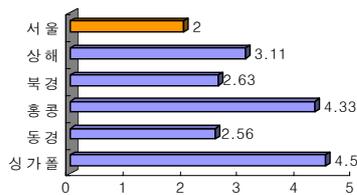
_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

외국인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배타적 감정 역시 경쟁 도시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미 국제화되어 있는 싱가포르, 홍콩은 말할 것도 없고, 동경이나 북경과 비교해도 외국인에 대한 태도가 극히 배타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_ 외국기업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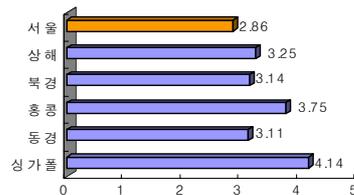
외국기업에 대한 태도 역시 외국인에 대한 태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비교 도시들 중에서 서울 시민의 외국기업에 대한 태도가 가장 덜 우호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30〉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



주: 1은 매우 강함, 5는 전혀 없음
출처: NRI 내부서베이

〈그림 2-31〉 외국기업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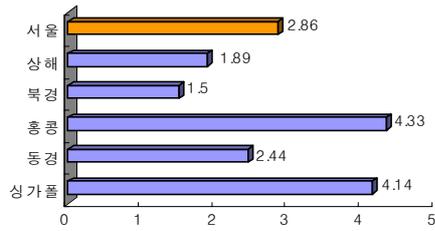


주: 1은 매우 적대적, 5는 매우 우호적

_ 외국인의 출입국 용이성(외국인에 대한 비자정책, 차별 등)

외국인의 출입국과 관련해서도 서울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2〉 외국인의 출입국 용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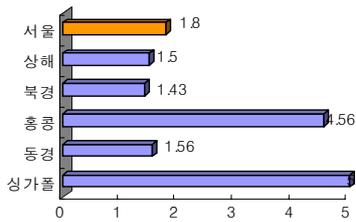


주: 1은 매우 불편, 5는 매우 용이
출처: NRI 내부서베이

— 일반 행정서비스의 영어사용수준/도시기반시설의 외국어 표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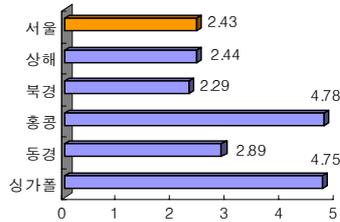
행정서비스 및 도시기반시설의 외국어 표기도, 외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여전히 불편한 여건을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일반 행정서비스, 도시기반시설 두 측면 모두 국제화가 크게 진전되어 있지만,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네 도시(서울, 상해, 북경, 동경)의 국제화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3〉 일반행정 서비스의 영어사용수준
(외국인대상 일반 행정서비스의 존재)



주: 1은 매우 낮음, 5는 매우 높음
출처: NRI 내부서베이

〈그림 2-34〉 도시기반시설의 외국어 표기정도



주: 1은 매우 낮음, 5는 매우 높음

3. 전략과제

5개 조사영역 32개의 지표로 구성된 전반적 시장환경에 대한 조사에서 각 도시가 가지는 경쟁력의 양상은 매우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연구 대상 6대 도시 가운데 경쟁력의 모든 조건을 갖춘 도시를 찾아보기란 힘들지만,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경쟁우위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 전략이라고 하겠다.

시장환경의 조사결과를 통해 도출된 몇 가지 사실과 쟁점 사항은 우선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경쟁우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이들 도시는 인적자원요소, 정부정책요소, 사업환경요소, 생활의 질 요소 등 시장요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영역에서 수위를 기록하였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이들 도시들이 가지는 국제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동경의 경우,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과 다국적기업의 집적에도 불구하고 도시경쟁력의 조건은 전반적으로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경제의 침체나 동경의 노후화된 하구부조에 대한 자국내 문제제기도 이러한 조사결과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최근 정부와 시정부 주도로 도시 재생사업을 통해 도시를 재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향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새로운 조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사한 경쟁적 위치에 놓여 있는 이웃 북경이나 상해는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상해의 경우 외국기업의 생산기지로써 발전은 향후 제조업 중심지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차별적인 전략적 타겟이 필요함으로 시사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시장요소나 사업환경요소 가운데 통신인프라와 같은 예외적인 경쟁우위를 보이는 영역이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환경과 관련된

도시경쟁력은 낮은 형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을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중요한 전략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 적극적이고 혁신지향적인 소비자 시장 등 유리한 시장환경의 존재는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활발하게 탐색하는 외국기업을 유인할 수

〈표 2-10〉 시장환경지표의 정리

카테고리	Index	구분	서울 경쟁력	1위 도시	
시장요소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	정량	2위	일본	
	소비자특성	정성	1위	서울	
	수도권 내 외국기업 생산기지의 수	정량	6위	상해	
인적자원	해외 인적 네트워크	정성	3위	홍콩	
	영어사용능력	정량	4위	싱가폴	
정부정책	법인세	정량	3위	홍콩	
	소득세	정량	4위	홍콩	
	부가가치세	정량	4위	홍콩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정도	정성	5위	홍콩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회계처리방식	정성	5위	싱가폴	
	외환관리정책	정성	4위	홍콩, 싱가포르	
	세금 면에서의 인센티브/ 자본 및 금융지원/ 물리적 지원	정성	4위	싱가폴	
사업환경	항공편으로 연결되는 도시수	정량	4위	홍콩	
	주요 도시행 항공편 수	정량	5위	북경	
	도심부에서 공항까지의 접근성	정량	5위	싱가폴	
	특급 호텔 수	정량	6위	동경	
	도로 인프라	정량	5위	싱가폴	
	통신 인프라	정량	1위	한국	
	대 사업자 서비스 수행하는 다국적 기업의 수	정량	6위	홍콩, 동경	
	자금조달 조건	정량	4위	일본	
	벤처캐피탈 규모	정량	3위	홍콩	
	투명성 지표	정량	4위	싱가폴	
	국가신용도	정량	4위	싱가폴	
	생활의 질	도시위험도	정성	3위	싱가폴
		외국인학교 수	정량	4위	홍콩
범죄율		정량	6위	상해	
대기오염도		정량	3위	동경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		정성	6위	싱가폴	
외국기업에 대한 태도		정성	6위	싱가폴	
외국인의 입출국 용이성		정성	3위	홍콩	
일반 행정서비스의 영어사용수준		정성	3위	싱가폴	
도시기반시설의 외국어표기 정도	정성	5위	홍콩		

있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은 도시경쟁력을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므로, 이 요인을 통해 전략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사업환경이나 쾌적한 생활의 질 등 다른 충분조건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 사업환경을 나타내는 많은 지표들이 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사업환경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적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경영 및 교류에 필요한 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부분이다.
- 아울러 정부정책요소도 대부분 중위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과 회계처리방식 등은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 생활의 질과 관련된 지표의 경우에도 중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의식과 태도, 기반시설 이용의 편의성 등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요소이다.

참고자료: 법인세, 소득세

■ 한국

법인세	<p>1. 세율: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 원 이하는 15%, 1억 원 이상은 27%</p> <p>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p> <p>1)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p> <p>(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중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p> <p>-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술이거나 3년이 경과한 기술로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2001.1.1 현재 530여 종목이 고시되어 있음)</p> <p>(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p> <p>-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억불 이상인 경우</p> <p>-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신규의 상시 고용규모가 1천명 이상인 경우 등 4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공장시설(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p> <p>-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제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이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일 것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관세자유지역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일 것</p> <p>2) 법인세 감면 내용</p> <p>(1) 외국인 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7년간 100%, 3년간 50%</p> <p>(2) 경제자유구역: 3년간 100%, 2년간 50%</p>
비고	<p>※ 2004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p> <p>(1) 외국인 투자지역: 5년간 100%, 2년 간 50% 세금 감면</p> <p>(2)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p>
소득세	<p>1. 세율: 9%, 18%, 27%, 36%의 누진세율</p> <p>2.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p> <p>1) 외국인 근로자 (임원 포함)의 경우: 우리나라에 근무해 추가로 지급 받는 해외거주수당, 주택수당, 자녀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수당 중 월정액 급여의 40%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p> <p>: 해외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p> <p>(1) 외국인학교의 학생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p> <p>(2)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거주하기 위해 지급한 임차료</p> <p>2) 외국인기술자의 경우</p> <p>: 특정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함)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특정 외국인기술자의 요건으로는 30만 달러 이상 계약분의 경우에 한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엔지니어링기술을 제공하는 자 등 5가지가 있음)</p> <p>: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함 (기술대가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으로 그 기술도입계약에 관한 신고필증 교부일부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함)</p>

비고	<p>※ 2004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p> <p>1)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 비과세되는 해외근무수당은 총 급여의 30%로 낮아짐 : 총 급여액의 17%선의 단일세율 과세나 각종 공제 후 내국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p> <p>2) 외국인 기술자의 경우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 3년간 연장되어 2006년 말 이전에 채용된 사람까지 면세혜택이 확대됨</p>
----	---

■ 중국

법인세	<p>1. 기본 세율: 33%</p> <p>2. 경감 세율</p> <p>(1) 경제 특구의 외자 기업 및 외국 기업: 15%</p> <p>(2) 경제 기술 개발 구역의 생산형 외자 기업: 15%</p> <p>(3) 연해 경제 개방구역, 경제 특구 및 경제 기술 개발구역의 구시가지의 생산형 외자 기업: 24%</p> <p>(4) 상기 (3)의 외자 기업 중, 특정 에너지, 교통 등의 인프라 설비 등과 관련된 기업: 15%</p> <p>(5) 외자 기업의 외국 투자자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배당금을 직접 해당 기업에 재투자했을 경우, 경영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때는 법인세의 40%가 환급됨</p> <p>(6) 「외국기업 투자 산업 지도 목록」의 장려산업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이하의 감면우대를 받을 수 있음</p> <p>① 추가 투자로 새롭게 증가하는 등록 자본액수가 6,000만 US달러 이상인 경우</p> <p>② 추가 투자로 새롭게 증가하는 등록 자본액수가 1,500만 US달러 이상이거나 기업 원래 등록 자본의 50% 이상이 되는 경우</p> <p>1) 계약 외 추가 투자한 항목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 1년째 및 2년째는 기업 소득세를 면제함. 제3년째부터 제5년째까지의 경우 반액 징수로 함</p> <p>2) 국무원이 공포한 전항의 규정보다 더 장기의 감면 우대의 경우 계속 집행함</p> <p>3. 결손금의 이월공제: 외자기업은 이월 결손금을 최장 5년간 이월해 이후의 각 사업 연도의 법인세액으로 상쇄 공제할 수 있음</p> <p>4. 외국 세액공제: 외자기업이 중국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 세액은 공제가능</p> <p>5. 비거주자의 원천 소득 과세: 중국 국내에 항구적 시설을 소유하지 않거나, 또는 항구적 시설을 소유하지만 중국 국내에서 얻은 배당, 이자, 임대료, 라이선스사용료 등의 소득이 해당 시설과 관련없는 경우 외국기업은 그 소득에 대해 20%의 원천세를 지불해야 함</p>																				
소득세	<p>1. 납세의무자: 거주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됨</p> <p>2. 세율: 급여소득의 경우 5~45%의 누진세율</p> <p>* 급여소득 개인소득세 세율표(과세소득액은 매월 수입액에서 800위안의 기초공제를 한 이후의 잔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과세소득액/월</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500위안 이하</td> <td>5%</td> </tr> <tr> <td>500~2,000위안</td> <td>10%</td> </tr> <tr> <td>2,000~5,000위안</td> <td>15%</td> </tr> <tr> <td>5,000~20,000위안</td> <td>20%</td> </tr> <tr> <td>20,000~40,000위안</td> <td>25%</td> </tr> <tr> <td>40,000~60,000위안</td> <td>30%</td> </tr> <tr> <td>60,000~80,000위안</td> <td>35%</td> </tr> <tr> <td>80,000~100,000위안</td> <td>40%</td> </tr> <tr> <td>100,000위안 이상</td> <td>45%</td> </tr> </tbody> </table>	과세소득액/월	세율	500위안 이하	5%	500~2,000위안	10%	2,000~5,000위안	15%	5,000~20,000위안	20%	20,000~40,000위안	25%	40,000~60,000위안	30%	60,000~80,000위안	35%	80,000~100,000위안	40%	100,000위안 이상	45%
과세소득액/월	세율																				
500위안 이하	5%																				
500~2,000위안	10%																				
2,000~5,000위안	15%																				
5,000~20,000위안	20%																				
20,000~40,000위안	25%																				
40,000~60,000위안	30%																				
60,000~80,000위안	35%																				
80,000~100,000위안	40%																				
100,000위안 이상	45%																				

■ 홍콩

법인세	<p>1. 세율: 16%</p> <p>2. 과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에서 행해진 경제활동 및 홍콩에서 행한 무역 사업의 수익 : 주식 배당 및 Capital Gain, 인가 은행의 예금 이자는 법인세 대상이 아님 : 홍콩에서 발행된 채무증서에 따른 수익, 제보험 회사가 offshore의 비즈니스에 대해 실시하는 제보험 서비스에 수반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특별 세율 8%가 부과됨 : 손실은 무기한으로 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음 <p>3. 비과세 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용 빌딩이나 시설 건설을 위해 자본을 지출한 경우, 지출 연도에는 그 지출의 20%가 최초로 공제되고 그 후는 지출의 합계액까지 매년 4%의 추가 공제가 있음 : 상업 빌딩에 대해서는 매년 4%의 감가상각 공제 있음 : 건물이나 시설의 개장에 대한 자본 지출은 매년 20%의 공제가 5년간 있음 : 제조관련 또는 컴퓨터의 하드, 소프트 및 개발 관련 시설 및 기계에 대한 지출은 ENC user가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즉시 100%의 일괄상각이 인정됨 <p>4. 그외의 공제 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입금에 대한 이자, 건물의 집세나 토지 사용료, 대손 준비금, 등록상표 및 특허 등록비, 과학적인 연구비용, 기술 교육 관련 지출, 종업원의 퇴직금 제도를 위한 공탁금 및 특허 취득 관련 지출도 공제 항목에 포함됨
소득세	<p>1. 세율: 2~17%(최고 세액은 순수입 총액의 15% 상당액).</p> <p>2. 과세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에서 근무 또는 취업한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 커미션, 보너스, 상여, 팁, 수당, 그외 임시 수입, 홍콩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수입 및 연금도 과세대상에 포함됨 : 외국국적 보유자가 60일 이내의 체재로 얻은 수입은 급여소득세를 공제함

■ 일본

법인세	세율: 30%											
소득세	<p>1. 세율 (과세 소득은 사회보험료 등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공제해 계산함)</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head> <tr> <th>과세소득금액</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330만 엔 이하</td> <td>10%</td> </tr> <tr> <td>330만 엔~900만 엔</td> <td>20%</td> </tr> <tr> <td>900만 엔~1,800만 엔</td> <td>30%</td> </tr> <tr> <td>1,800만 엔 이상</td> <td>37%</td> </tr> </tbody> </table> <p>2. 원천징수 제도와 연말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징수제도는 지불자가 종업원의 급여, 상여를 지불할 때마다 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임 : 급여의 지불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어 급여소득의 원천징수 세액표로 산출한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각자에게 지불하며, 공제한 세액은 세무서에 납부함 : 원천징수된 세금은 소득세의 개산 지불이며, 연간 소득이 확정되는 단계에 그 때까지 공제한 원천소득세의 합계액과 연간의 급여, 상여 총액에 대한 확정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조정임 : 연간 급여 등의 수입액수가 2000만 엔을 넘는 사람은 연말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각자가 소득세액을 계산해 소득세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함 		과세소득금액	세율	330만 엔 이하	10%	330만 엔~900만 엔	20%	900만 엔~1,800만 엔	30%	1,800만 엔 이상	37%
과세소득금액	세율											
330만 엔 이하	10%											
330만 엔~900만 엔	20%											
900만 엔~1,800만 엔	30%											
1,800만 엔 이상	37%											

■ 싱가포르

법인세	1. 세율: 22% (거주 법인, 비거주 법인 구별없음). 2. 과세 대상 (1)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 (2) 싱가포르에 원천이 있는 소득 (3) 싱가포르 국외 원천 소득 중 싱가포르에서 수취된 소득
소득세	1. 세율 (1) 비거주자: 고용 소득의 경우 15%, 임원 보수의 경우 22% (2) 거주자: 총소득에서 모든 공제를 한 후의 과세 소득에 대해 누진과세율이 적용됨. 소득 단계에 따라 4~22%의 누진과세. 면세 소득은 2만 S달러 이하 2. 과세 대상 : 싱가포르의 거주, 비거주에 관계없이 개인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싱가포르에 원천이 있는 소득에 대해 싱가포르의 소득세가 과세됨 : 거주자의 경우 싱가포르 국외 소득 중 싱가포르에서 수취된 소득도 과세대상이 됨

출처: 한국-법무부, www.kisc.or.kr, Moneytoday, 매일경제; 중국-홍콩-일본-싱가폴-www.jetro.go.jp

제3장 R&D 중심지로서의 경쟁력

- 1 동북아시아의 R&D 중심지는?
- 2 시장요소
- 3 인적자원
- 4 정부정책
- 5 사업환경
- 6 생활의 질 요소
- 7 전략관계

1. 동북아시아의 R&D 중심지는?

R&D 센터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수요요소와 자원요소 두 축을 근간으로 볼 필요가 있다. 수요요소는 R&D를 필요로 하는 시장조건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생산기지의 입지현황, 하이테크 제품 생산, 외국계 R&D 센터의 입지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자원요소는 R&D를 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적자원, 특허, 연구개발 능력, 연구개발 자금 등을 지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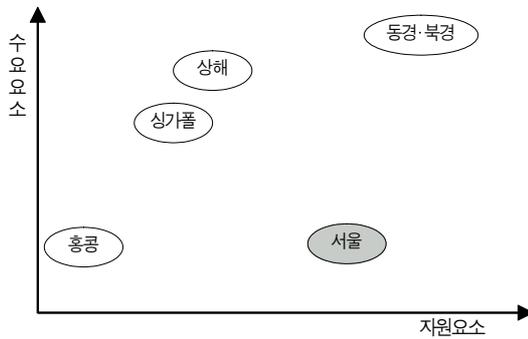
〈표 3-1〉 R&D 센터 육성 요소

수요요소	자원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의 경쟁력 • 다국적기업 생산기지의 입지현황 • 하이테크 제품 생산 • 외국계 R&D 센터 입지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자원 • 특허 • 연구개발 비용

_ R&D 중심지 경쟁력 평가

서울은 동경, 상해, 북경에 비해 R&D 센터로서의 역량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림 3-1〉 동아시아 각 도시의 R&D 센터 경쟁력 Map



주. R&D 경쟁력 평가 표를 점수화하여 경쟁 도시간 상대적 위치를 표시

〈표 3-2〉 R&D 경쟁력 평가

분류		서울	상해	북경	홍콩	동경	싱가폴
수요 요소	국내기업의 경쟁력	△	×	×	△	◎	×
	다국적 기업 생산기지의 입지현황	×	◎	○	×	×	△
	하이테크 제품 생산	△	△	△	×	◎	○
	외국계 R&D 센터 입지현황	×	△	◎	△	×	△
자원 요소	인적자원	○	○	◎	×	◎	△
	특허	○	△	△	△	◎	△
	연구개발 비용	○	△	◎	×	○	△

◎ 매우 경쟁력이 있음, ○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음, △ 보통임, × 경쟁력이 없음.

동경은 하이테크 제품 생산과 국내기업 경쟁력에서 충분한 수요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자원요소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국내기업이 주도하는 R&D 센터가 집중되어 있지는 않다. 상해와 북경은 다국적기업의 생산기지 및 외국계 R&D 센터의 입지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인적자원 및 연구개발 비용 측면에서도 일본과 대등한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동경, 상해, 북경에 비해 R&D 센터로서 역량이 미흡한 상황이지만, 국내기업 경쟁력과 하이테크 제품 생산, 특허 등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발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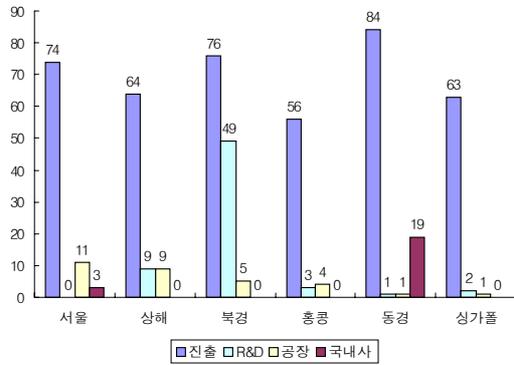
2. 시장요소

_ 외국계 R&D 센터의 입지

R&D 센터를 갖출 수 있는 업종을 기준으로 Fortune 500대 기업 중 상위 100대 기업의 각 도시별 진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R&D 센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는 북경으로 조사되었다. 상위 100대 기

업 중 76개 기업이 진출하여, 이 중 49개 기업이 R&D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조사대상 기업 중 서울에 R&D 거점을 설치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외국계 R&D 센터의 입지 현황



- 참고: R&D 센터 설치업종
- Network & Other Communications Equipment
 - Pharmaceuticals
 - Semiconductors and Other Electronic Component
 - Beverages
 - Aerospace & Defense
 - Household & Personal Products
 - Oil and Gas Equipment, Services
 - Scientific, Photo, Control Equipment
 - Chemicals
 - Motor Vehicles & Parts
 - Industrial & Farm Equipment
 - Food Consumer Products
 - Forest & Paper Products
 - Computer Software
 - Engineering, Construction
 - Electronics, Electrical Equipment
 - Computers, Office Equi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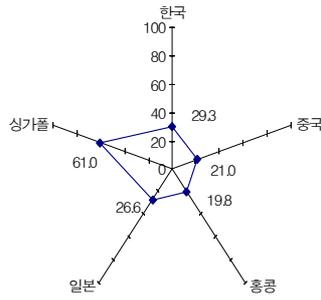
〈표 3-3〉 외국계 R&D 센터의 입지 현황

	서울	상해	북경	홍콩	동경	싱가폴
진출	74	64	76	56	84	63
국내사	3	0	0	0	19	0
공장	11	9	5	4	1	1
R&D	0	9	49	3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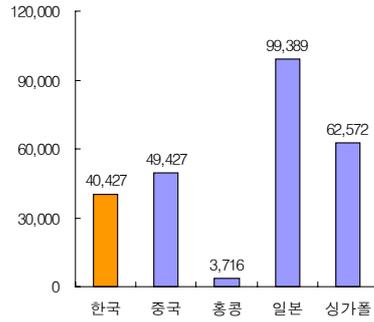
_ 하이테크 수출액 및 공업제품 수출 중 비율

WDI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한국의 하이테크 제품 수출 비율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양적 측면에 있어서는 일본은 물론, 싱가포르와 중국에도 크게 뒤 떨어진 수준이다.

〈그림 3-3〉 하이테크 수출(2001)
(제조업 수출 대비 비율)



〈그림 3-4〉 하이테크 수출(2001)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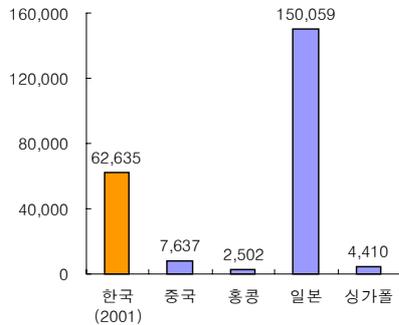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 2003

주: High-Tech exports
: products with high R&D intensity
: aerospace, computers, pharmaceuticals,
scientific instruments, electrical machiners,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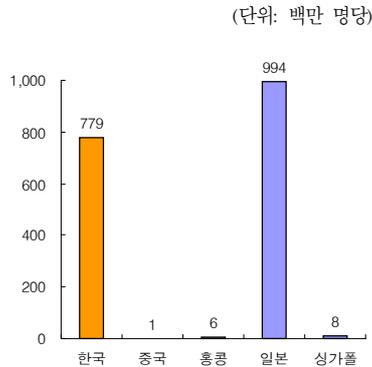
_ 등록 특허건수/ 주민당 특허건수

한국은 일본과 함께 등록 특허건수 및 주민당 특허건수에 있어서 아시아지역 타 도시를 압도하고 있어 자국기술 주도의 R&D 센터를 만드는 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특허 등록이 대기업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기업과 연계된 R&D 거점 육성전략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3-5〉 등록 특허건수(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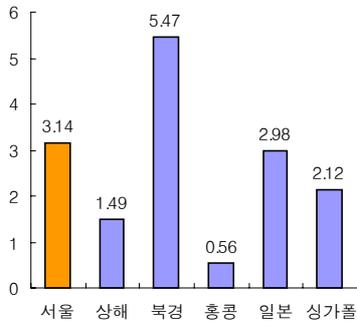
〈그림 3-6〉 주민당 특허건수(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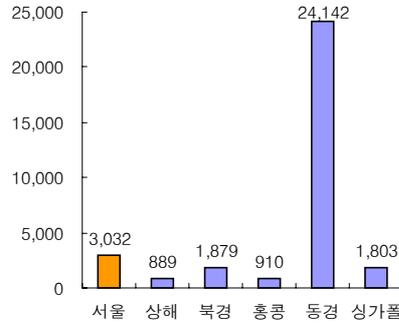
_ GDP(GRDP) 대비 연구개발비

OECD 통계에 따르면, GDP 대비 R&D 지출의 경우 한국은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지만, 최근 R&D 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북경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7〉 R&D에 대한 지출(2001)
(% of GDP)



〈그림 3-8〉 R&D 비용(2001)
(단위: 백만 달러)



3. 인적자원

_ 연구원 수

일본 경제산업성의 연구원 수에 대한 국제조사에 따르면, 1999년 현재 주요 경쟁국의 연구원은 일본이 65만 8천 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53만으로 일본에 버금가는 규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박사학위 취득자 가운데 미국에서 취득한 박사학위자 수가 경쟁국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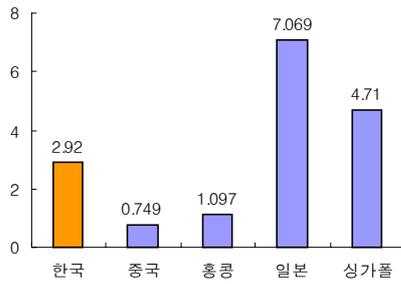
한국은 연구자 수나 박사학위 취득자 수에 있어서 일본과 중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인구대비 R&D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구성은 일본이 1,000명당 7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의 경우 2.9명으로 싱가포르 다음으로 나타났다.

〈표 3-4〉 각국의 연구자 수

국가	연구자 수 (1999)	박사학위 취득자 수 (1999)	
		자국	미국
한국	136,337*	2,587**	780
일본	658,909	6,575	152
중국	531,000	6,775	2,378
싱가폴	13,817	907	871

주: *은 2001년 자료, **는 2002년 자료
출처: 일본 경제산업성 기술환경국 기술 조사실, 2002 과학기술연감

〈그림 3-9〉 인구 대비 R&D 종사자 수(2001)
(인구 1,000명당 상시 정규 고용자 수[F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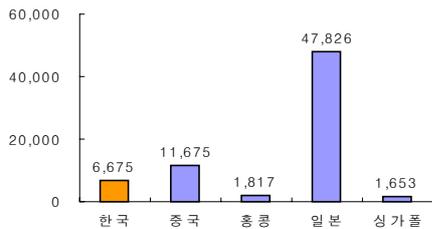


출처: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2002/2

기술자와 연구자의 기초 능력수준

NSF의 통계에 따르면, 기술자/연구자의 기초 능력 수준의 척도인 과학 논문 수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상당히 뒤처지며, 중국에 비해서도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의 질을 나타내는 논문 인용 회수도 일본이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과학 논문 수(1999)
(단위: 편수)



출처: NSF,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 2002

〈표 3-5〉 논문당 인용회수(1992.1~2002.6)

	Citations Per Paper
한국	3.39
중국	2.55
일본	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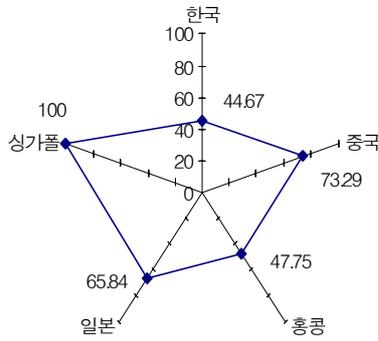
주: Papers, Citations, Citations Per Paper 등 세 분야 상위 20개 국가 중 홍콩, 싱가폴은 없음.

출처: ISI, Essential Science Indicators

이공계 인력의 수준관련 교육기관

고등교육자 중 이공계 인력 비중은 한국이 가장 낮은 반면, 이공계 교육기관의 수준은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상위 30위권 이내의 교육기관은 일본 5곳, 중국 3곳인 반면, 한국은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이공계 학위자 비율
(% of Total First University Degrees in Science and Engineering in 1999)



출처: NSF,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 2002*

〈표 3-6〉 과학기술계 대학 순위(2002)

	한국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폴
30위 이내 학교 수	2	3	1	5	1

Rank	Science and Technology Schools	Score	Rank 1999
1	Korea Advanced Inst. of Science & Tech	90.79	1
2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	81.07	2
6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71.44	3
9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67.75	8
11	Science University of Tokyo	62.74	13
12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62.4	-
13	Nagoya Institute of Technology	62.05	12
15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of China	58.53	9
16	Muroran Institute of Technology	57.57	18
17	Beijing University of Posts & Telecommunications	57.45	16
18	Huazhong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57.17	11
29	Tokyo Denki University	51.48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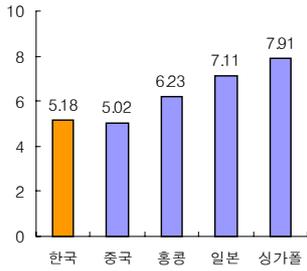
출처: www.asiaweek.com

4. 정부정책

_ 지적재산권의 관리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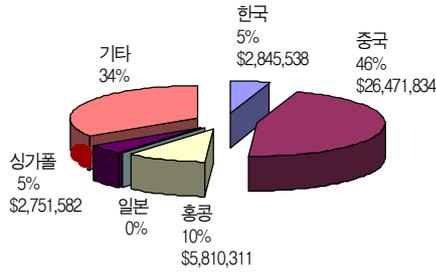
기술 중심의 R&D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R&D의 성과뿐만 아니라, 외국기술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도 매우 중요한 조건을 이룬다. IMD의 서베이 결과 한국은 특허 및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2〉 특허 및 저작권의 보호가 법에 의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정도 (서베이, 1~10점, 2003)



출처: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그림 3-13〉 2001 회계년도 미국 제품 지적 재산권 관련 체포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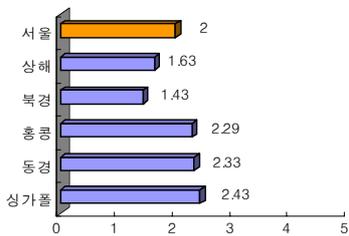
출처: US Customs Service

5. 사업환경

_ 비즈니스에서 인맥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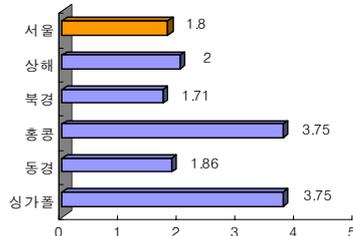
사업에서 인맥은 유리한 사업환경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기도 하지만, 또한 균등한 기회를 제약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상해와 북경은 비즈니스에서 인맥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서울은 중국의 도시들보다는 덜 하지만, 경쟁 도시에 비해서는 인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림 3-14〉 비즈니스에서 인맥의 중요성



주: 1은 매우 불편, 5는 매우 용이
출처: NRI 내부서베이

〈그림 3-15〉 외국인 취업의 용이성



주: 1은 매우 불편, 5는 매우 용이

_ 외국인 취업의 용이성

외국인 취업에 있어서도 서울은 북경 및 동경과 더불어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6. 전략과제

가치체인(Value Chain)상의 상류를 구성하는 연구개발은 혁신적 기업을 창출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이런 이유로 전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R&D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경제활동의 지역화를 계기로 최근 동북아에서도 연구개발의 지역거점이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조사에는 시장요소의 외국계 R&D 센터 입지현황으로부터 생활의 질, 외국인 출입국 용이성 등 연구개발 기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검토하였다. 조사결과를 종합해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쟁점 사실들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동경, 북경, 상해를 중심으로 상대적 우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시장환경지표에서 확인된 결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이미 산업과 과학영역에서 오랜 역사와 높은 경쟁력을 가진 동경의 경우 많은 지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반면 북경이나 특히 상해와 같은 도시에 존재하는 높은 수준의 R&D 환경은 R&D 중심지로서 서울에 새로운 경쟁요인이 되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R&D 중심지의 경쟁우위는 연구개발과 직접적 연관이 적은 환경요소-정부정책, 사업환경, 생활의 질-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들 도시와 비교해볼 때, 서울은 시장환경지표에서 확인된 결과보다

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활동과 직결되는 시장요소와 인적자원요소는 중상위 수준을 보이고 있어, R&D 중심지로서 일정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략과제를 지적할 수 있다.

- 기업의 혁신활동이 양질의 연구개발 환경과 함께 외부 소비자 시장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서, 까다로운 고객과 기술집약성이 높은 하이테크 기업의 발전은 향후 서울시가 R&D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한 가능성이자 중요한 강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이러한 강점을 더욱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표 3-7〉 R&D 중심지 지표정리

카테고리	Index	구분	공통	서울 경쟁력	1위 도시
시장요소	외국계 R&D 센터 입지현황	정량	단독	6위	북경
	소비자 특성	정성	공통	1위	서울
	하이테크 기업의 비율(수출품 중 하이테크 제품비율)	정량	단독	2위	동경
	수도권 내 다국적기업 공장수	정량	공통	6위	상해
	자국기업의 경쟁력	정량	공통	2위	동경
	등록 특허수 / 주민당 특허수	정량	단독	2위	동경
인적자원	GRDP대비 총 연구비	정량	단독	3위	북경
	인구대비 연구원수	정량	단독	3위	동경
	해외 인적 네트워크	정성	공통	3위	홍콩
정부정책	기술자와 연구자의 기초 연구수준	정성	단독	3위	동경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정성	공통	3위	홍콩
	지적재산 관리정책	정성	단독	4위	동경
	비즈니스에서 인맥의 중요성	정성	단독	4위	싱가폴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정도	정성	공통	5위	홍콩
사업환경	투자 인센티브(세제/금융/물리적 지원)	정성	공통	4위	싱가폴
	벤처캐피탈 투자규모	정량	공통	3위	홍콩
생활의 질	비즈니스에 있어서 인맥 중요성	정성	단독	4위	싱가폴
	외국인학교 수	정량	공통	4위	홍콩
	도시안전성	정성	공통	2위	싱가폴
	외국인 취업의 용이성	정성	단독	5위	싱가폴/홍콩
	외국기업에 대한 태도	정성	공통	6위	싱가폴
	외국인 출입국의 용이성	정성	공통	5위	싱가폴/홍콩

- 또한 R&D 중심지의 조건과 관련하여 다른 중요한 측면은 연구개발의 성과가 생산이나 유통과 같은 기업의 다른 영역과 긴밀하게 연계되고 지속적으로 환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산학연 협력과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 강구는 이러한 쟁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중심지와 관련하여 최근 생활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 역량이 고급 과학기술인력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고급 과학기술인력 유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생활의 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서울의 열악한 생활환경은 향후 R&D 중심지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제4장 금융중심지로서의 경쟁력

1 동북아시아의 금융중심지는?

2 시장요소

3 인적자원

4 정부정책

5 사업환경

6 전략과제

1. 동북아시아의 금융중심지는?

금융중심지는 크게 금융시장 규모와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정도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금융시장의 규모는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등의 시장규모로 측정될 수 있다. 반면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정도는 시장에서 접하는 외국 자본의 비중을 통해 구체적으로는 다국적 금융기관의 입지,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 수, 외국인 투자액, 외화채권 발행액수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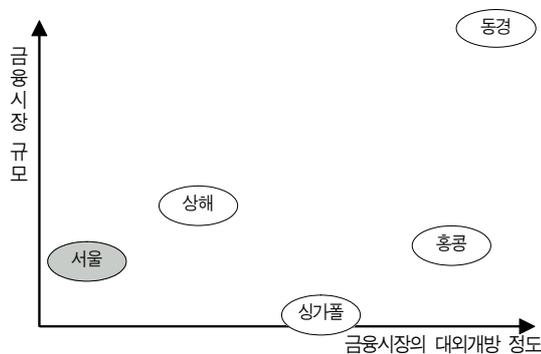
〈표 4-1〉 금융시장 규모 및 대외개방 요소

금융시장 규모	대외개방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시장 규모 • 채권발행 규모 • 개인금융자산 규모 • 기업여신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적 금융기관의 입지 •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 수 • 금융부분 외국인 투자액 • 외화채권 발행액수

_ 금융중심지 경쟁력 평가

금융 세계도시로서 동경은 아시아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0〉 동아시아 각 도시의 금융센터 경쟁력 Map



〈표 4-2〉 금융경쟁력 평가

분류		서울	상해	홍콩	동경	싱가폴
금융시장 규모	주식시장 규모	△	△	△	◎	×
	채권발행 규모	△	△	△	◎	×
	개인금융자산 규모	△	△	-	◎	×
	기업여신 규모	△	◎	△	◎	×
대외개방 요소	다국적 금융기관의 입지	×	△	◎	○	△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 수	×	×	△	○	◎
	외국인 투자액 규모	△	◎	○	△	△
	외화채권 발행액수	△	×	△	◎	×

◎ 매우 경쟁력이 있음, ○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음, △ 보통임, × 경쟁력이 없음.

2. 시장요소

_ 개인 금융자산 규모/기업 여신 규모

개인 금융자산, 기업 여신(Credit) 등 모든 측면에서 일본은 대규모의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개인 금융자산은 일본에 이어 2위로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기업 여신 규모는 일본과 중국이 한국의 약 10배 정도로 규모가 크다.

〈표 4-3〉 개인 금융자산규모 및 기업여신규모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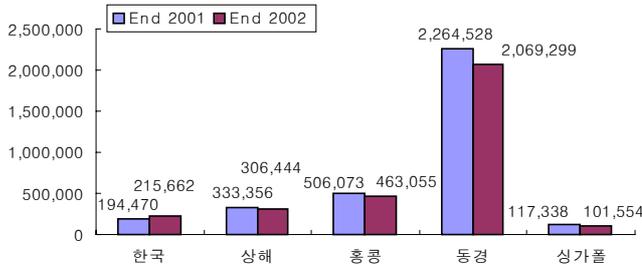
국가	개인 금융자산 규모	기업 여신 규모	출처
한국	8,369 (2003 1Q)	2,270 (2003 1Q)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중국	2,697 (2002)	21,931 (1999)	『중국통계연감』, China Internet Information Center
홍콩	-	2,333* (2003 1Q)	Hong Kong Monetary Authority
일본	27,135 (2003 1Q)	31,844 (2003 1Q)	『금융경제통계월보』, 일본은행 조사통계국
싱가폴	868 (2002)	757 (2002)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IMD

주: Gross Domestic Credit to Private Sector

주식시가총액

주식시장 규모 역시 동경은 경쟁 도시 전체를 합친 것보다 클 정도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증시 규모는 일본의 1/10, 중국과 홍콩의 1/2.5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경쟁 도시 중에서는 2001~2002년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

〈그림 4-2〉 주식시장규모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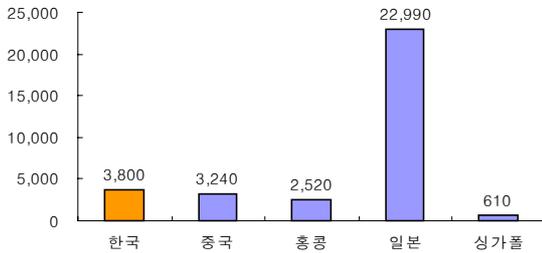


출처: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채권시장 규모

채권시장의 경우에도 동경은 주식시장 규모와 마찬가지로 경쟁 도시 전체를 합친 것보다 규모가 크다. 한국의 채권시장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가는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4-3〉 채권발행규모 (단위: 억 달러)



주: 싱가폴은 2002년 기준(www.sgs.gov.sg), 그의 국가는 2001년 기준(서울파이낸스포럼)

국제 채권(International Bond) 발행규모

국제 채권은 채권 발행자의 국적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되는 채권으로 채권 표시통화가 채권이 발행되는 국가의 통화인지 또는 아닌지에 따라 각각 유로채(Euro Bond)와 외국채(Foreign Bond)로 구분한다. 국제 채권 발행규모는 일본이 압도적이며, 한국은 일본의 약 1/10 규모이다.

〈그림 4-4〉 국제채권 발행규모(2002.1.1~2002.6.30)
(단위: US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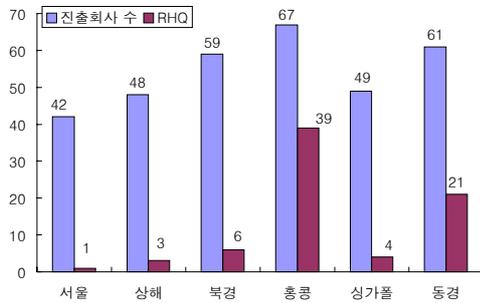


출처: Thomson Financial

금융업체 진출 현황

각 도시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금융업체는 홍콩이 가장 많고, 동경과 북경이 뒤를 잇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RHQ의 경우, 홍콩에 가장 많이 입지하고 있다.

〈그림 4-5〉 각 도시에 진출한 다국적 금융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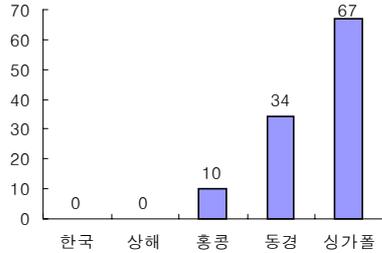


출처: NRI 조사

_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수

각 도시(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수는 싱가포르가 경쟁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고, 동경과 홍콩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서울과 상해의 경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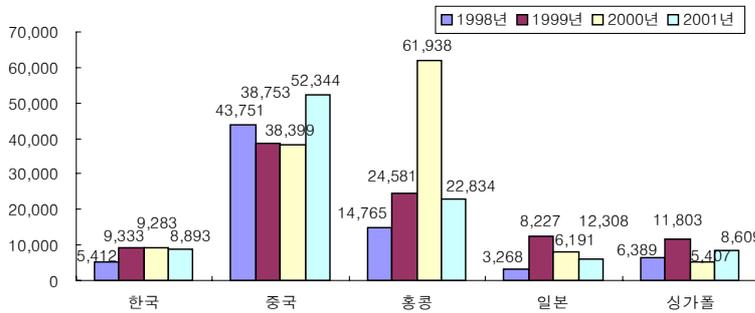
출처: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
 (http://www.world-exchanges.org/WFE/home.Asp)

_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998~2001년 사이 중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 다음은 홍콩으로 2000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

〈그림 4-7〉 외국인 직접투자규모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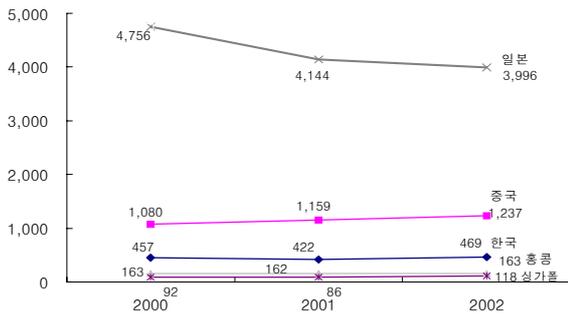
출처: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자료 정리

_ GDP 규모

GDP 규모는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4조 달러로 압도적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연평균 7%대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며 연 1조 3,371억 달러의 GDP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은 2002년 GDP가 4,687억 달러 규모로 국가적 규모는 중국과 일본에 크게 뒤떨어진다. 그러나 적은 규모의 GDP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홍콩을 고려하면, 주변 국가의 경쟁력은 커다란 시장기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4-8〉 GDP

(단위: 10억 달러)



출처: IMF

_ 기관투자자의 금융자산 규모

기관투자자의 금융자산 규모는 일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하여 한국은 국내 기관투자자의 금융자산이 일본의 1/1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4〉 기관투자자의 금융자산(2000)

국가	액수(단위: 억 달러)	비고
한국	2,965	주: *는 Life Insurers'Assets/ Liabilities와 General Insurers'Assets /Liabilities의 합 출처: OECD Institutional Investors Statistical Yearbook 2001,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중국	66	
홍콩	-	
일본	50,398	
싱가포르	256*	

_ M&A시장 활성화 정도

국경간(Cross Border) M&A를 기준으로 할 때,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본과 홍콩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국경간 M&A시장 규모는 중국보다는 크지만,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그림 4-9〉 M&A 시장 활성화 정도
(국경간 M&A: sales, 100만 달러,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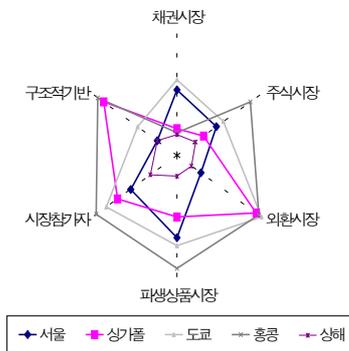


출처: 국제무역연구소

_ 금융시장의 발전정도

서울파이낸스포럼의 발표에 의하면 금융시장의 부분별 균형 발전이라

〈그림 4-10〉 금융시장의 발전정도
(가능한 최고와 비교한 발전정도)



- * 각 분야를 구성하는 항목
- 채권시장: 자국정부, 국내기업, 외국정부, 외국기업
- 주식시장: 국내대기업, 국내중소기업, 국제대기업, 국제중소기업
- 외환시장: 자국통화, 이종통화, 국내매매자, 국제매매자, 세계와의 연계, 외환스왑 및 헷지
- 파생상품시장: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영가, 증권사, 투자은행, 금융관련 서비스 업체
- 시장참가자: 은행, 보험회사, 자산운영가, 증권사, 투자은행, 금융관련 서비스 업체
- 구조적 기반: 거래인프라, 투명성, 금융기법, 전문성, 규제구조, 법체계

출처: 서울파이낸스 포럼자료를 재구성

는 측면에서 서울은 동경에 비해 대부분 열위에 있으며, 특히 구조적 기반 및 외환 시장경쟁력 측면에서 많이 뒤쳐지고 있다. 서울이 비교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채권시장으로, 동경을 제외한 타 지역의 금융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상해의 경우 아직 금융시장의 발전이 미진하여, 홍콩의 기능을 대체할 만큼 성장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 인적자원

_ 재무전문가 풀(P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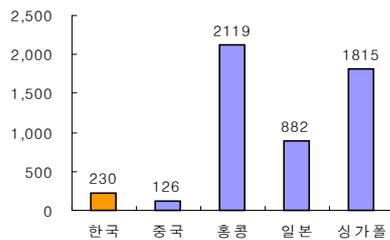
금융중심지가 되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의 공급은 싱가포르와 홍콩이 가장 많고, 일본과 한국이 중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전문가 풀을 평가하는 또 하나의 지표라 할 수 있는 CFA 취득자 수 역시 홍콩과 싱가포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인적자원관련 경쟁력 순위
서베이 결과(2003)

국가	재무전문가 Pool
한국	5.306
중국	4.566
홍콩	7.364
일본	5.390
싱가폴	7.813

출처: IMD, 2003

〈그림 4-11〉 CFA 취득자 수
(누적인원, 2003년 8월 기준)



출처: AIMR(한국의 경우 ksip.or.kr)

_ 국제적인 전문 인력양성 기관과 수준

아시아 지역의 대학 수준에 대한 기존의 평가(Asiaweek, 2000년)에서 한국은 싱가포르와 홍콩에 필적하는 MBA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 중심지를 표방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Insead, 시카고 MBA 등 미국의 톱클래스의 아시아 분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MIT와 Wharton도 공동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등 교육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IMD에서 발표한 교육경쟁력에서 싱가포르(4위)은 홍콩(30위), 중국(44위) 한국(47위), 일본(49위) 등에 비해 압도적인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다.

〈표 4-6〉 Asia's Best MBA Schools 2000: by Reputation(Overall)

	한국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폴
30위 이내 학교수	2	1	3	3	2

〈표 4-7〉 Asia's Best MBA Schools 2000: Best Full-Time Programs(Overall)

	한국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폴
30위 이내 학교수	2	1	1	2	2

Rank	Science and Technology Schools
2	NUS Business School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6	Seoul National University
8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9	Nanyang Business School(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10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11	University of Hong Kong School of Business
12	Wased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sia Pacific Studies(Japan)
13	China Europ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China)
18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19	Hitotsubashi University, Japan
21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Rank	Science and Technology Schools
5	NU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Business School
6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7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9	Nanyang Business School(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13	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14	China Europe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China)
16	Wased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sia Pacific Studies(Japan)
20	Seoul National University

출처: www.asiaweek.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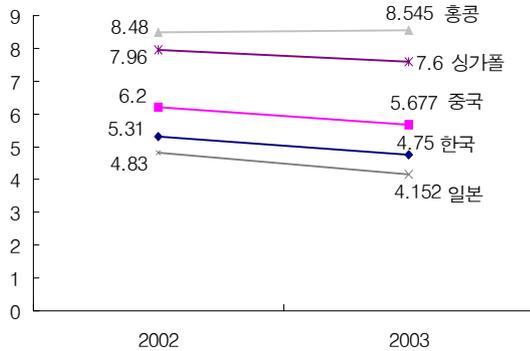
4. 정부정책

_ 은행관련 규제

정부의 은행관련 규제가 경쟁력을 제약하지 않는 정도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보다도 규제가 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특히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에 관한 인·허가가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불만

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외국계 은행 인터뷰 결과).

〈그림 4-12〉 은행관련 규제가 경쟁력을 제약하지 않는 정도(서베이, 1~1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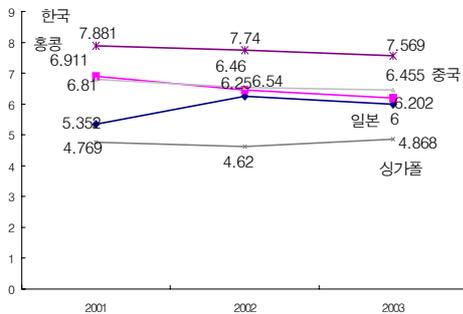


출처: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2~2003

중양은행에 대한 정책의 적정성

중양은행의 정책적 적정성에 대한 IMD 조사에서 한국의 중양은행 정책은 일본보다는 양호하지만, 아시아 대부분의 경쟁국에 비해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3〉 중양은행 정책이 경제발전엔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정도(서베이, 1~10점)



〈표 4-8〉 중양은행 정책적 적정성

	2001	2002	2003
한국	7.881	7.74	7.569
중국	6.81	6.54	6.455
홍콩	6.911	6.46	6.202
일본	5.352	6.25	6.000
싱가폴	4.739	4.62	4.8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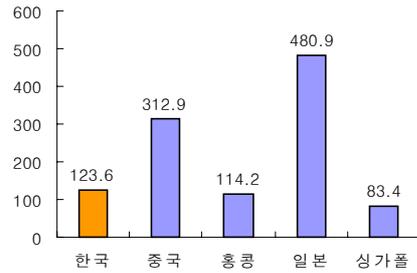
출처: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1~2003

5. 사업환경

_ 외환보유고

외환보유고는 일본, 중국, 한국, 홍콩 순으로, 아시아지역에 외환보유 상위 랭킹 국가가 몰려 있다. 외환 보유에 있어, 각국 모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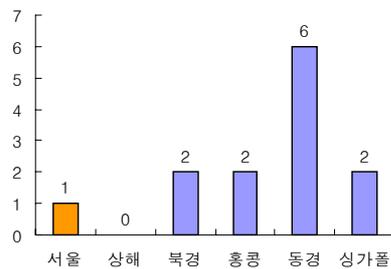
〈그림 4-14〉 외환보유고(2003년 3월 기준)
(단위: 십억 달러)



_ 국제금융기구의 수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입지 역시 금융센터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 가운데

〈그림 4-15〉 주요 국제금융기관의 진출 현황



주: 주요 국제금융기관 ADB, BIS, IFC, IMF, ISDA, MIGA, Worldbank.

출처: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하나이다. 주요 국제금융기구의 아시아지역 입지에 대한 조사결과, 동경에 가장 많은 기관이 진출해 있으며, 서울에는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사무실만 입지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_ 도시 주요 지점별 사무실 임대료

CB Richard Ellis에서 발표한 전세계 주요 도시 도심부의 사무실 임대료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비교대상 도시 가운데 사무실 임대료는 동경이 1,271달러/m²로 가장 높고, 서울은 555달러/m²로 홍콩의 564달러/m²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경쟁력이 있는 곳은 상해(260달러/m²)로, 동경의 1/5 수준이며, 서울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 연간 m²당 임대료
(단위: US달러)



출처: CB Richard Ellis.

6. 전략과제

20세기 중반 이후 국제무역 및 투자의 증대와 경제자유화로 인해 금융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뉴욕, 런던, 동경과 같은 최상층 세계도시의 등장과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상과 맥을 같

이하의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동북아의 주요 도시들도 금융의 지역 중심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도 국제금융중심지를 전략의 목표로 설정한바 있다.

금융중심지 지표는 시장요소에 해당하는 개인 금융자산 규모로부터 생활의 질 요소에 해당하는 외국인 출입국의 용이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42개 지표를 활용하였다. 금융중심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정책적 쟁점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경은 거의 절반 정도의 지표에서 수위를 나타냄으로써 국제중심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도시의 경쟁력에서 선발입지가 갖는 이익을 고려해볼 때, 이는 매우 중요한 강점이긴 하지만 최근의 상대적 침체에 비추어 볼 때 절대적 조건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 4-9>에 정리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싱가포르와 홍콩 등이 오랫동안 효율적인 정부정책, 적절한 사업환경 조성, 생활의 질 개선을 통해 금융중심지로서의 상당한 전략적 우위를 갖추어가고 있는 것은 금융중심지 서울에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반면 북경이나 상해의 경우 금융중심지로서의 전략적 우위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지만 최근 저렴한 입지요건과 정부 주도의 푸동 일대 경제특구전략 등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점은 지정학적 조건과 관련하여 서울의 금융중심지 전략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서울의 경우 각 지표에 따라 순위에서 최하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조건으로는 금융중심지로서의 잠재력을 가늠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 강점과 약점에 비추어볼 때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은 금융중심지 서울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표 4-9〉 금융중심지 지표정리

카테고리	Index	구분	공통	서울 경쟁력	1위 도시
시장요소	개인금융자산규모	정량	단독	2위	일본
	기업여신규모	정량	단독	3위	일본
	주식, 채권발행규모	정량	단독	3위	일본
	국제채권 발행액수	정량	단독	3위	동경
	금융업체 진출현황	정량	단독	2위	동경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수	정량	단독	2위	동경
	FDI	정량	단독	3위	북경
	GDP	정량	단독	3위	일본
	기관투자자의 금융자산 규모	정량	단독	2위	일본
	M&A 시장활성화 정도	정량	단독	4위	일본
	금융시장의 다양성	정성	단독	4위	홍콩
	자국기업 중 2000대 기업의 수	정량	공통	2위	일본
인적자원	영어가능자 수	정량	공통	4위	싱가폴
	재무전문가 풀(Pool)	정성	단독	4위	싱가폴
	해외인적 네트워크	정성	공통	3위	홍콩
	국제적 인력양성기관의 존재유무	정성	단독	3위	싱가폴
정부정책	법인세소득세	정량	공통	3위	홍콩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정도	정성	공통	5위	홍콩
	회계투명성	정성	공통	4위	싱가폴
	외환관리정책	정성	공통	4위	일본, 홍콩
	은행관련 규제	정성	단독	4위	홍콩
	중앙은행의 정책 적정성	정성	단독	4위	싱가폴
	투자 인센티브(세계 인센티브, 자본 및 금융관련 지원)	정성	공통	-	-
사업환경	주요 도시행 항공편수	정량	공통	5위	북경
	오피스 렌트 비용	정량	단독	4위	상해
	공항까지의 거리	정량	공통	6위	상해
	특급 호텔 수	정량	공통	6위	동경
	도로 인프라	정량	공통	5위	싱가폴
	통신 인프라	정량	공통	1위	한국
	대사업자 서비스	정량	공통	6위	홍콩
	자금조달조건	정량	공통	4위	일본
	벤처캐피탈 투자규모	정량	공통	3위	홍콩
	국제금융기관의 입지	정량	단독	6위	동경
	투명성지표	정성	공통	4위	싱가폴
	외화보유고	정량	단독	3위	싱가폴
	도시위험도 지표	정성	공통	-	-
	국가신용도	정량	공통	4위	싱가폴
생활의 질	외국인학교 수	정량	공통	4위	홍콩
	범죄율	정량	공통	5위	상해
	도시안전성	정성	공통	2위	싱가폴
	외국기업에 대한 태도	정성	공통	6위	싱가폴
	외국인 출입국의 용이성	정성	공통	3위	홍콩

- 시장환경은 다른 영역과 비교해볼 때, 제한적이긴 하지만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한 일정한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M&A의 활성화나 금융시장의 다양성 등 선진 금융시스템 도입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은 여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사업환경은 정보통신 인프라와 같은 일부 지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의 입지조건, 국제적 접근성,接客시설 등에서 나타난 약점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인적자원과 관련하여 금융의 국제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회계투명성이나 외환관리 및 금융규제 등 정부정책과 관련한 대부분의 지표가 중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제5장 물류중심지로서의 경쟁력

- 1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심지는?
- 2 시장요소
- 3 사업환경
- 4 전략과제

1. 동북아시아의 물류중심지는?

물류중심지는 항공 물류와 해상 물류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시는 경쟁도시에 비해 항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므로 직접적인 물류 중심지가 되기보다는, 부산이나 인천이 경쟁력 있는 물류 중심지가 되도록 다국적 물류기업의 본부 유치 등을 통해 수도권지역의 전략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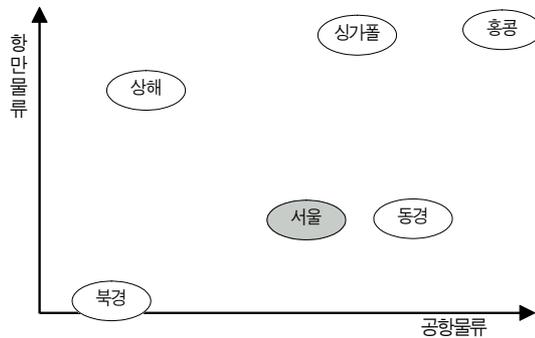
〈표 5-1〉 물류 요소

항만물류	공항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물류 처리규모 •항만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항물류 처리규모 •공항 이용객 수

_ 물류중심지 경쟁력 평가

물류경쟁력은 항만물류와 공항물류 양쪽에서 홍콩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인근 인천공항의 경쟁력은 큰 편이지만, 주항만과의 거리가 멀어 항만을 중심으로 한 허브가 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공항 중심의 물류체계와 연계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5-1〉 동아시아 각 도시의 물류중심지 경쟁력 Map



〈표 5-2〉 물류경쟁력 평가

분류		서울	상해	북경	홍콩	동경	싱가폴
항만 물류	항만물류 처리규모	○	○	-	◎	△	◎
	항만 접근성	△	◎	-	◎	○	◎
공항 물류	공항물류 처리규모	○	△	△	◎	◎	○
	공항 이용객 수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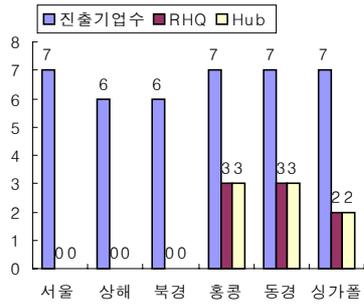
◎ 매우 경쟁력이 있음, ○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음, △ 보통임, × 경쟁력이 없음.

2. 시장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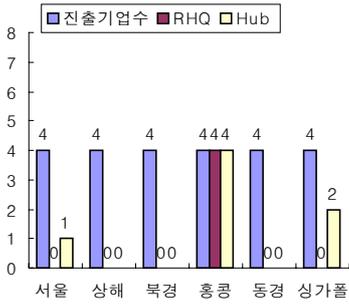
_ 아시아의 물류중심지 현황

대형 항공사 7개사와 대형 운송회사 4개사의 아시아 진출현황을 통해 물류 및 운송 여건을 살펴보았을 때, 동남아 지역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 동북아 지역에서는 동경이 지역 물류 및 운송의 중심지로 되어 있다.

〈그림 5-2〉 주요 대형항공회사 7사의 도시별 진출현황(국적기 제외)



〈그림 5-3〉 주요 대형 물류회사(4사)의 도시별 진출현황



- 주: 1) 대형항공회사: Air France, British Air, Luft Hansa, KLM, Delta, United Air, North West
 2) 대형물류회사: Fedex, UPS, TNT, DHL.

_ 공항화물 처리규모

공항화물 처리량은 경쟁 도시 공항 가운데 인천공항이 홍콩과 동경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다. 항공 물류 허브로서는 실질적인 경쟁상대인 동경에 비해 열세에 처해 있으나, 상해보다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림 5-4〉 공항화물 처리규모
(단위: 톤, 2003)



출처: www.airports.org

_ 국제선 승객 수

국제선 이용 승객 수는 홍콩, 싱가포르, 동경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림 5-5〉 인근공항 국제선 승객 수연간
(2000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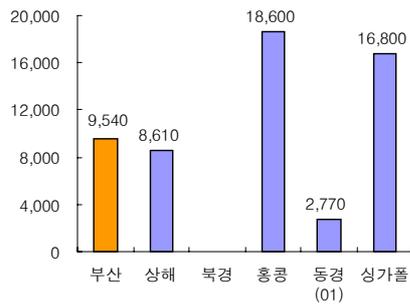
출처: Airport handbook, 칸사이 공항 조사회.

3. 사업환경

_ 항만화물 처리규모

항만은 동아시아지역에서 상해와 부산이 경쟁을 하고 있다. 최근까지는 부산항이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3위의 물류기지였지만, 상해항과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2003년 상반기 누적 실적의 경우 상해항은 519만 9천 TEU, 부산항은 522만 5천 TEU).

〈그림 5-6〉 항만화물 처리규모(2002)
(단위: 천 TEU)



출처: 2002 해양수산 주요통계, www.kca.or.kr

〈표 5-3〉 항만기능의 유무

도시	유무 및 거리
서울	○ 인천: 48km 부산: 4,150km
상해	○
북경	×
홍콩	○
동경	○
싱가폴	○

_ 항만까지의 접근성

동경, 싱가포르, 홍콩은 도시 자체가 항만에 연립해 있는 반면, 서울은 주 항만인 부산항까지 450km, 인천항까지 48km로 경쟁 도시에 비해

항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따라서, 서울은 직접적인 물류기지로서 경쟁하기보다는 부산이나 인천이 경쟁력 있는 물류중심지가 되도록 다국적 물류기업의 본부 유치 등 수도권지역의 전략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류비용

전반적인 수입관련 물류비용을 나타내는 CIF/FOB 비율에서 한국은 1.82로 다른 경쟁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7〉 CIF/FOB 비율



〈표 5-4〉 GDP 대비 국가물류비 비율

	물류비 비율	출처
한국 (01)	12.4%	건설교통부
중국 (00)	20.0%	civic-exchange.org
일본 (97)	9.6%	건설교통부

주: 1)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도착항까지 모든 운임과 해상보험료까지 판매자부담(FOB+항상운임+해상보험료). ex) CIF New York U.S \$1,000
 2) FOB(본선인도가격, free on board)–선적항의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까지 판매자부담. ex) FOB PUSAN U.S \$1,000 per case
 출처: World Bank

4. 전략과제

가치체인(Value Chain)상의 하류에 해당하는 물류는 최근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지 전략을 계기로 중요한 전략적 타겟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중심지 전략과 맞물려 최근 경기도 일부 지역과 인천을 중심으로 물류중심지 전략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과의 지정학

적 위치나 산업구조상의 공간적 분업에 비추어볼 때 서울 또한 물류중심지를 전략적 타겟의 하나로 그 가능성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류중심지 지표는 시장요소에 속하는 대형 항공회사의 진출현황으로부터 사업환경 요소에 속하는 도시위험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2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조사내용에도 불구하고 물류중심지 타겟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쟁점사항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홍콩과 싱가포르를 과거 자유무역도시로서의 선발이익에 힘입어 현재에도 물류중심지로서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홍콩은 시장요소와 정부정책요소 외에 일부 사업환경요소에서도 수위를 기록함으

〈표 5-5〉 물류중심지 지표정리

카테고리	Index	구분	공통	서울 경쟁력	1위 도시
시장요소	아시아의 물류중심지 현황	정성	단독	4위	홍콩
	수도권 내 다국적기업 공장 수	정량	공통	6위	상해
정부정책	법인세	정량	공통	3위	홍콩
	소득세	정량	공통	4위	홍콩
	부가가치세	정량	공통	4위	홍콩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정도	정성	공통	6위	홍콩
	외환관리 정책	정성	공통	4위	일본, 홍콩
	세계면의 인센티브	정성	공통	4위	싱가폴
	물리적 지원	정성	공통	4위	싱가폴
사업환경	항공편으로 접근 가능한 도시 수	정량	공통	4위	홍콩
	주요 도시행 항공편수	정량	공통	5위	북경
	공항까지의 접근성	정량	공통	5위	상해
	공항물류 처리규모	정량	단독	3위	홍콩
	국제선 승객 수	정량	단독	4위	홍콩
	항만물류 처리규모	정량	단독	3위	홍콩
	항만까지의 접근성	정량	단독	5위	상해
	물류비(CIF/FOB)비율	정량	단독	5위	일본, 싱가포르
	도로인프라	정량	공통	5위	싱가폴
	통신인프라	정량	공통	1위	한국
도시위험도 지표	정성	공통	3위	싱가폴	

로써 물류중심지로서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외에 동경과 북경, 상해가 일부 요소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물류중심지로서의 조건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물류중심지는 서울 자체의 전략적 타겟이기보다는 수도권 전략적 타겟이 되어야 하며, 서울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수도권의 물류중심지는 대부분 중하위 수준이어서 물류중심지로서의 가능성이 상당한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은 물류중심지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 정부정책요소 외에 물류중심지에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도시 항공편수나 공항까지의 접근성, 항만까지의 접근성과 물류비용 등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위 물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 서울시의 경우 수도권의 물류중심지화가 궁극적으로 서울의 산업 경쟁력에 중요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광역적 차원에서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 특히 수도권 물류중심지 전략 추진과정에서 서울의 산업적 특성, 인력 및 자원의 유출입, 국제적 교류와 네트워크 등에 관한 실태와 특성이 체계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협력과 연계 채널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6장 컨벤션중심지로서의 경쟁력

1 동북아시아의 컨벤션중심지는?

2 시장요소

3 인적자원

4 생활의 질

5 전략과제

1. 동북아시아의 컨벤션중심지는?

컨벤션중심지는 현재 얼마나 많은 국제회의가 개최되는지, 그리고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인프라가 얼마나 있는지 등의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개최 빈도는 국제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국제회의의 개최 건수를 의미한다. 컨벤션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로는 국제 컨벤션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소(특급 호텔), 컨벤션을 기획하는 컨벤션 기획자 그리고 회의 진행에 필수적인 동시 통역자의 공급 등이 특히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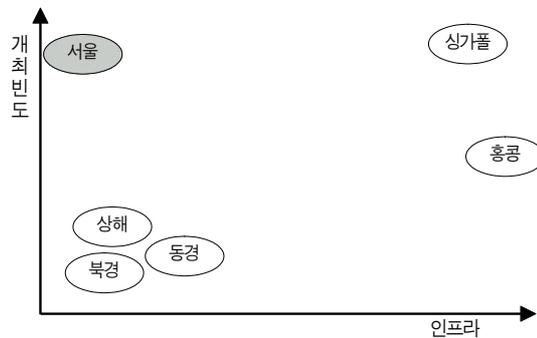
〈표 6-1〉 컨벤션 요소

개 최 빈 도	인 프 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회의 개최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벤션 기획자 • 동시통역자 수 • 특급호텔 수

_ 컨벤션중심지 경쟁력 평가

현재 서울의 국제회의 개최 빈도는 아시아에서 2번째로 많은 수준이나, 인프라는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벤션중심지가 되기 위해

〈그림 6-1〉 동아시아 각 도시의 컨벤션중심지 경쟁력 Map



〈표 6-2〉 컨벤션경쟁력 평가

분류		서울	상해	북경	홍콩	동경	싱가폴
개최빈도	컨벤션 개최회수	◎	-	△	○	△	◎
인프라	국제회의 기획자	×	×	×	◎	×	◎
	동시통역자 수	△	△	○	△	△	△
	특급 호텔 수	×	△	×	◎	○	○

◎ 매우 경쟁력이 있음, ○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음, △ 보통임, × 경쟁력이 없음.

서는 단기적인 정책효과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컨벤션 인프라의 확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시장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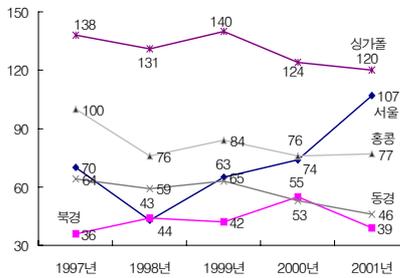
컨벤션 개최빈도

서울은 아시아지역에서 싱가포르와 함께 컨벤션중심지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서울은 2001년도에 컨벤션 개최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보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아시아지역의 전체 컨벤션 회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신장세를 나타냈다. 아시

〈표 6-3〉 국제 컨벤션 개최회수 및 World Ranking(1997~2001)

연도		서울	북경	홍콩	동경	싱가폴
97년	개최수	70	36	100	64	138
	순위	22위	47위	9위	25위	6위
98년	개최수	43	44	76	59	131
	순위	37위	35위	20위	26위	6위
99년	개최수	65	42	84	63	140
	순위	24위	42위	14위	27위	5위
00년	개최수	74	55	76	53	124
	순위	20위	32위	18위	33위	5위
01년	개최수	107	39	77	46	120
	순위	8위	38위	16위	33위	5위

〈그림 6-2〉 국제 컨벤션 개최회수 (1997~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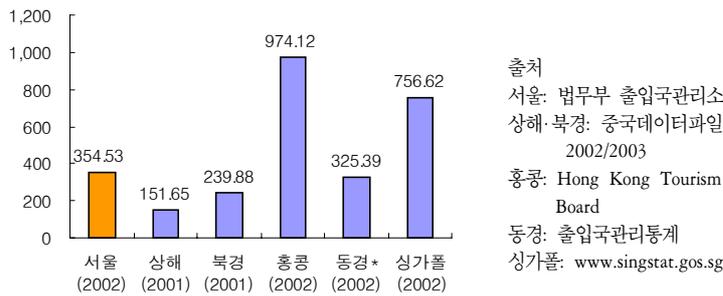
출처: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2001.

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컨벤션 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2001년 기준 연간 120회).

_ 도시인근 공항이용 외국인 입국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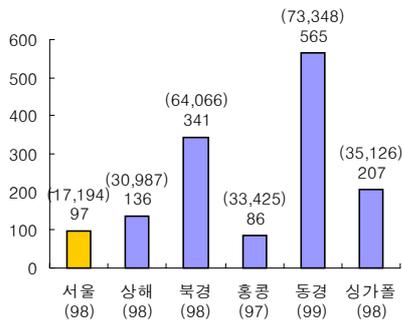
동북아시아에서는 서울의 외국인 입국자 수가 연 354만 명으로 가장 많지만, 여기에는 일본인 관광객의 비중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인근 공항을 이용한 외국인 입국자 수는 홍콩이 가장 많으며, 싱가포르, 서울, 동

〈그림 6-3〉 도시인근 공항이용 외국인 입국자 수
(만 명, 연간)



주: * 오사카의 외국인 입국자 수 115.41만 명(2002)

〈그림 6-4〉 호텔 수 및 객실 수



주: () 안은 객실 수

출처: 동경도 정책보도실, 『경쟁하는 아시아의 도시』

경, 북경, 상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동경의 경우 오사카의 간사이공항 개항 이후 입국자가 양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_ 호텔 수(특급, 비즈니스 포함)

서울은 경쟁 도시 가운데 숙박시설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은 컨벤션 자체는 말할 것도 없고, 컨벤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관광산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이다.

3. 인적자원

_ 전문 국제회의 기획자(Congress Organizer)의 수

한국에는 전문적인 국제회의의 기획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ICCA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 회의 기획자의 수를 살펴보면, 등록자의 19%가 홍콩, 15%가 싱가포르에 있으며, 서울에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6-5〉 ICCA 등록 회의기획자 상위 5개국
(단위: 명, 총 등록자 수 1,59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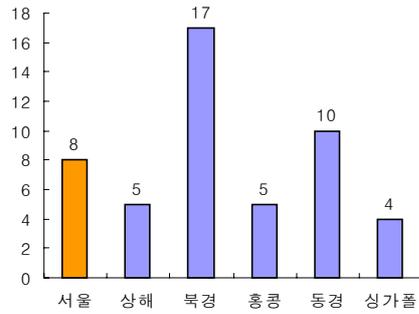


출처: ICCA(<http://www.iccaworld.com/Downloads/ICCADATA/Corpdata/corporate2003.pdf>)

_ 동시통역자 수

국제회의 통역사협회(AIIC)에 등록된 국제회의 전문 동시통역자 수 역시 서울은 매우 부족하다.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영어가 실질적으로 공용어로 사용되므로, 동시통역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6〉 AIIC(국제회의 통역사협회) 등록 동시통역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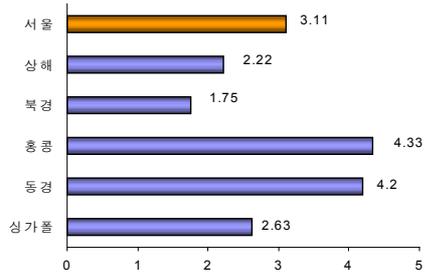
주: 2003년 현재 전체 등록자는 2,671명임.
출처: AIIC.

4. 생활의 질

_ 쇼핑의 매력

컨벤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쇼핑 등의 관광 여건 또한 중요한 경쟁요소이다. 서울의 경우 북경, 상해, 싱가포르보다는 쇼핑의 매력이 있는 편이지만, 전반적인 수준은 보통에 머물고 있다. 쇼핑에 강점이 있는 도시로는 전도시가 면세점화되어 있는 홍콩과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브랜드 상점이 들어서 있는 동경 등을 손꼽을 수 있다.

〈그림 6-7〉 쇼핑의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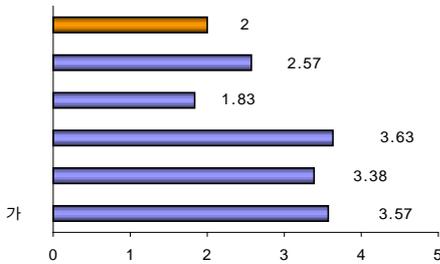


주: 1은 전혀 없음, 5는 매우 큼
출처: NRI 내부 서베이

_ 외국인 커뮤니티(차이나타운 등)의 활성화 정도

서울은 차이나타운과 같은 외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도시이다. 홍콩, 싱가포르, 동경 등 이미 국제화가 이루어진 도시는 물론, 중국의 상해와 비교해서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6-8〉 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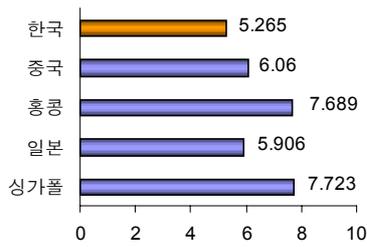


주: 1은 전혀 활성화 안됨, 5는 매우 활성화됨
출처: NRI 내부 서베이.

_ 외국문화 개방도(외국영화, TV방송, 책, 음악 등의 수입에 대한 규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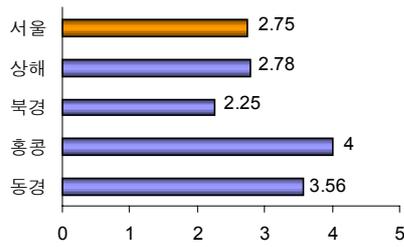
서울은 외국문화에 대해서도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당히 폐쇄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예상대로 홍콩과 싱가포르가 외국 문화에 대한 개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9〉 국민문화가 외국의 영향에 개방되어 있는 정도(서베이, 1~10점, 2003)



출처: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그림 6-10〉 외국문화 개방도



주: 1은 매우 폐쇄적, 5는 완전 개방
출처: NRI 내부 서베이.

5. 전략과제

전세계적으로 도시활성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이른바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과 결부되어 부상하고 있는 도시의 전략적 타겟 가운데 하나가 바로 컨벤션 중심지이다. 컨벤션은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 신산업이라는 측면 외에, 장소마케팅 전략의 성공을 위한 기반이라는 이중의 전략적 의미를 가진다. 서울의 경우, 최근 월드컵 등 국제교류와 이벤트의 활성화, 문화적 활기, 관광산업의 확대 등이 주요 추세가 되어 컨벤션 중심지가 중요한 전략적 타겟으로 부상하고 있다.

컨벤션 중심지 지표는 시장요소에 해당하는 컨벤션 개최빈도로부터 생활의 질에 해당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외국인 표기정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2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컨벤션의 특성상 관련 지표는 대부분 환경적 요건과 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컨벤션 중심지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정책적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적으로 다원화된 구조가 두드러진다. 즉, 각 지표에 따라 동북아 6대 도시 모두 일정한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지만,

사실 현재로서 동북아지역에서 컨벤션의 절대적 우위를 판단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즉 각 도시의 역사적 과정과 문화적 자산에 따라 특정 영역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발전으로 인해 물리적 환경의 차이가 감소하고 있어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자산, 특히 생활의 질 요소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생활의 질 면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상대적 우위는 이들 도시들이 가지는 중요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4〉 컨벤션중심지 지표정리

카테고리	Index	구분	공통	서울 경쟁력	1위 도시
시장요소	Convention 개최빈도	정량	단독	2위	싱가폴
	도시인접공항이용 외국인 입국자수	정량	단독	3위	홍콩
	소비자 특성	정성	단독	1위	서울
인적자원	영어가능자 수	정량	공통	3위	싱가폴
	전문적인 국제회의 기획자	정량	단독	3위	홍콩
	동시통역자 수	정량	단독	3위	북경
정부정책	소득세	정성	공통	4위	홍콩
사업환경	접근 가능한 도시 수	정량	공통	4위	홍콩
	주요도시별 항공편수	정량	공통	5위	북경
	공항/항만까지의 접근성	정량	공통	5위	상해
	호텔 수	정량	공통	5위	동경
	공공설비/인프라에 대한 만족도	정성	공통	4위	싱가폴
생활의 질	도시위험도 지표	정성	공통	3위	싱가폴
	범죄율	정량	공통	4위	중국
	대기오염	정량	단독	3위	일본
	식사, 놀이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정성	단독	-	-
	문화시설수준	정성	단독	-	-
	생활정보에 대한 접근	정성	단독	-	-
	쇼핑의 매력	정성	단독	3위	홍콩
	외국인 커뮤니티의 활성화정도	정성	단독	5위	홍콩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	정성	공통	6위	싱가폴
	외국문화에 대한 개방도	정성	공통	5위	홍콩
	외국인 출입국의 용이성	정성	공통	3위	홍콩
	행정 서비스의 영어공용	정성	공통	3위	싱가폴
	도시기반시설의 외국어 표기 정도	정성	단독	4위	홍콩

서울의 경우 시장요소 외에, 인적자원요소가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환경 요소는 앞의 다른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생활의 질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조한 수준이다. 컨벤션중심지 전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은 중요한 전략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 컨벤션중심지 타겟에 있어서도 사업환경, 특히 국제적 접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호텔 수 등 인프라 측면에서 낮은 경쟁력 등도 민간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을 통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 조사결과에 비추어볼 때, 생활의 질 가운데 외국인 및 외국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컨벤션 중심지가 되는데 상당한 제약요인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벤트와 홍보 등 국제적 개방성을 지향하기 위한 문화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제7장 전략과 대책

1 전략 구상

2 주요 과제와 대책

1. 전략 구상

서울시가 R&D 중심지, 금융 중심지, 컨벤션 중심지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구상은 다음과 같다.

〈표 7-1〉 서울시에 대한 시사점

	서울이 가진 자원		서울이 처한 환경		서울에 대한 전략적 시사점
	강 점	약 점	기회요인	위험요인	
국제 R&D 센터	하이테크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대기업 경쟁력 High IT Literacy와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	다국적기업 진출 미비 R&D 인프라 미비	전 세계적 인 첨단산업 붐	·북경을 중심으로 경쟁 도시의 중심도시 선정	·정보통신관련 Global Leadership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국내외의 관련 기업들이 참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함
국제 금융 센터	금융시장의 규모	다국적기업 진출 미비	중국의 성장	·상해의 성장 ·홍콩과 동경의 지위불변	·서울시 전략사업으로 금융산업 지정 ·직접 금융활동과 금융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금융클러스터 육성 ·도산: 국제금융도시의 중심기능 수행하는 종합금융지구 조성 ·여의도: 증권거래소 중심의 금융관련 서비스업 집중 ·강남: 제2의 종합금융 중심지로 육성
물류 중심지	인천과 부산의 물류 경쟁력	인천과 부산까지의 접근성 ·다국적기업의 생산기지 부족	지리적 이점	·상해의 성장 ·항공 허브로서 동경의 지위	·인천의 공항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 다국적 물류기업 본부유치를 우선 추진 ·중국의 황해연안 도시들을 중점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각 도시별 공항과의 네트워크 조성
컨벤션 중심지	최근 급증한 국내 개최 국제회의의 증가	국제회의의 기획자 부족 ·동시통역사 부족 ·특급호텔 부족 ·관광자원 부족		·북경과 상해의 성장	·국제회의의 기획자, 동시통역사, 호텔 등의 컨벤션 인프라 확충 ·홍콩, 싱가포르 같은 컨벤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 필요 ·한국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분야(IT, 인터넷 게임 등) 관련 국제적인 컨벤션을 정부 주도로 정기화

_ R&D 중심지로서의 전략구상

R&D 중심지로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U-KOREA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이다. U-KOREA 연구센터는 정보통신부에서 IT Complex를 조성할 예정인 상암동 DMC 지역에 설치하여 이 지역이 서울의 새로운 R&D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U-KOREA 연구센터는 삼성전자, KT, SK telecom 등 경쟁력 있는 IT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학 협동센터로서 R&D 센터의 중심

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R&D 관련 업계간, 업계 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첨단기술 표준화를 중심으로 공동작업을 활성화하고, 주도 기업의 마켓리더십을 이용하여 관련업체들의 참가를 유도한다.

서울의 주요 R&D 영역으로는 유무선통합 실증실험, RFID 실증실험, 정보가전 상품화 연구를 들 수 있다. R&D 센터로서 서울이 가지는 메리트는 서울 시민의 높은 IT 활용도(High IT Literacy)와 유행에 민감한 특성 등 테스트 베드로서 충분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_ 금융중심지로서의 전략구상

금융중심지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에서 금융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직접 금융활동과 금융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금융클러스터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전략으로 도심에 국제 금융도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종합금융지구를 조성하고, 여의도에 증권거래소 중심의 금융관련 서비스업을 집중시키며, 강남은 제2의 종합금융중심지로 육성한다.

국제금융기관 및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서울소재 대사관의 상무관, 주한상공회의소 등을 중개기구로 활용하는 전략과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Seoul International Business Advisory Council), 외국인 투자자문위원회(FIAC: 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 등 자문기구를 활용하는 전략, 장래 북한과 시베리아개발을 위해 동북아개발은행을 신설하여 기금을 활용하고 본부를 유치하는 전략, 채권,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아시아거래소시장 신설을 추진하는 전략 등을 모색해볼 수 있다.

_ 물류중심지로서의 전략구상

인천공항의 국제 허브화를 위한 최우선 전략은 세계적 물류업체의 동아시아 총괄본부(RHQ)를 서울에 유치하는 것이다. 물류중심지의 타겟은

사람보다는 물류, 항만보다는 항공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춰 중국의 황해 연안 도시들을 중점적으로 공략할 수 있도록 각 도시의 공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하는 일이다.

인천공항의 국제 허브화를 위한 전략은 네덜란드의 스키폴(Schiphol) 공항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스키폴 공항은 자체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전체의 항공물류 거점으로 성장하였으며, 각 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가장 중요시한 것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천공항의 국제 허브화 전략에서도 이러한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서울이 항공물류를 포함한 종합적인 물류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주요 항만도시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부산의 경우 경쟁력이 있는 항만이지만 서울과 거리가 멀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인천과 평택 등 수도권 지역의 항만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_ 컨벤션중심지로서의 전략구상

컨벤션중심지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회의 기획자(Convention Organizer), 동시통역사, 호텔 등의 컨벤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다. 인프라 확충은 홍콩, 싱가포르처럼 정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컨벤션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기적 방문을 이끌어내기 위한 관광자원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만의 볼거리, 놀거리의 확충이 선결요건이며, 오사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 등과 같이 국제 집객을 위한 도시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 즉, 레고랜드 등 국제적인 지명도가 있는 테마파크의 유치, 북한산 등산코스 등 서울에 특화된 관광자원의 개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확대 등 범도시적 차원에서 장소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유명한 전시회

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 하노버의 세빗(CeBIT), 라스베가스의 추계 컴덱스(Comdex), 일본의 동경 게임쇼와 같은 국제적인 지명도를 가진 정기적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한국만의 강점을 살려 IT 및 통신, 온라인 게임 등의 분야에서 정기적인 국제컨벤션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과제와 대책

앞서 도출된 네 영역의 전략적 타겟, 즉 R&D 중심지, 금융중심지, 물류중심지, 컨벤션중심지 전략구상에 대해, 타겟별 쟁점과 주요 과제 및 대책들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_ 기반환경

기반환경을 둘러싼 과제는 서울시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 기반환경 현황

분류	항목	현황
시장 요소	수도권 내 다국적기업 공장 수	경쟁 도시에 비해 절대열세
	자국기업의 경쟁력	경쟁력 있는 기업수로는 아시아 2번째
	소비자 특성	서울의 소비자 혁신과 적극적 지향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남
인적 자원	영어가능자 수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절대열세
	해외인적 네트워크	경쟁력 있음
정부 정책	세제(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높은 수준임
	세계면의 인센티브	외국기업 유치에 크게 매력적이지 않음
	자본 및 금융관련 지원, 물리적 지원	외국기업에 대한 법적 차별정도에서 한국은 아시아 경쟁 도시 중 최하위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정도	외국기업에 대한 법적 차별정도에서 한국은 아시아 경쟁 도시 중 최하위
	회계투명성	경쟁 도시 중 최하위
외환관리정책	규제가 아직 남아 있음	

분류	항목	현황
사업 환경	항공편으로 접근 가능한 도시수	홍콩, 동경, 싱가포르에 비해 접근가능한 도시 수 적음
	공항까지의 접근성	거리도 멀고 접근 수단도 한정되어 도심까지 소요시간이 많이 걸림
	특급 호텔 수	경쟁 도시 중 가장 적음
	도로/통신 인프라	브로드밴드의 경우 경쟁 도시들 중 최고 수준임
	대사업자 서비스	법률시장 미개방으로 로펌 진출하지 못함
	자금조달조건	홍콩 다음으로 대출 금리가 높음
	벤처캐피탈 투자규모	아시아지역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다음임
	투명성지표	경쟁 도시 중 최하위권
	도시 안전도 지표	서울은 자연재해로부터는 비교적 안전한 도시
	국가신용도	안정적이나 중국 이외 타 경쟁국가에 비해 열위
삶의 질	외국인학교 수	중국도시보다는 많으나 타 경쟁 도시에 비해 열위
	범죄율	경쟁 도시 중 가장 높은 편
	대기오염도	서울 중간 정도임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	경쟁 도시 중 가장 강한 편임
	외국기업에 대한 태도	경쟁 도시 중 가장 배타적임
	외국인 출입국의 용이성	비교적 용이하나 홍콩/싱가폴에 비해서는 부족
	일반 행정서비스의 영어사용 수준	매우 부족함

■ 시장요소

- 경쟁 도시에 비해 열세에 있는 수도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위주 정책’에서 ‘성장관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에 대한 현행 입지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공장 입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입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 외국인 거주를 위한 커뮤니티 형성과 동반자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외국인 학교와 병원 등 관련 인프라 지원 등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 인적자원

- 외국어 구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 우수대학의 분교 설치가 가능하도록 수도권 대학입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첨단기술 및 금융, 패션, 국제업무, 의료 등 전문대학원 유치

를 위해 과실송금(果實送金) 보장 등 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

■ 정부정책

-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세제도를 개혁하고 간소화해 불필요한 마찰과 금융거래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국제적 수준으로 낮춰 서울의 입지 유인 동기를 강화한다.
- 경쟁 도시 중 최하위인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보고에 대한 신뢰성 있는 회계감사, 통합/결합재무제표에 대한 완전한 공시, 회계 및 감사 부정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 외환관리정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외환거래의 보고 및 허가요건을 줄이고, 외환거래시간을 다른 시장의 타임스케줄과 맞추어 연장할 필요가 있다.
- 규제 위주의 수도권 정책을 전략산업, 핵심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사업환경

- 경쟁 도시 가운데 특급 호텔 및 비즈니스 호텔 수가 가장 적는데, 사업환경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급호텔 및 비즈니스 호텔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 국가 차원에서 대사업자서비스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국제적인 법률서비스는 국제금융중심지 및 R&D 중심지, 물류중심지, 컨벤션중심지가 되기 위한 핵심기능이므로, 다양한 법률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법률시장 개방이 필요하다.
- 국제공항과 도심 간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전용 철도를 조기에 준공하여 접근시간을 단축하도록 한다.

■ **삶의 질**

- 외국인인의 입국 및 취업과 관련된 비자 종류를 다양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해 서울시의 부지 제공이나 재정적 지원, 혹은 직접 설립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사학재단의 영리법인화, 과실충금의 보장, 입학자격의 확대 등의 교육법 개정이 요구된다.
- 최소한 구청까지 외국기업 및 외국인을 위한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외국어, 특히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_ R&D 중심지

■ **R&D 중심지 현황**

분류	항목	현황
시장요소	하이테크 기업의 비율(수출품 중 하이테크 제품 비율)	수출품 중 하이테크 제품의 비중이 30%에 달함
	등록특허수/주민당 특허 수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많음
	GRDP대비 총 연구비	일본과 비슷, 북경의 절반 수준
인적자원	이공계 석사/박사 수	일본과 중국에 비해 크게 떨어짐
	인구대비 연구원 수	일본과 싱가포르보다 낮은 수준임
	기술자와 연구자의 기초연구수준	일본 및 중국에 비해서도 뒤처짐
정부정책	지적재산권 관리정책	중국과 함께 가장 지적재산권 관리가 안됨
사업환경	비즈니스에 있어서 인맥 중요성	중국 다음으로 인맥이 중시됨

■ **시장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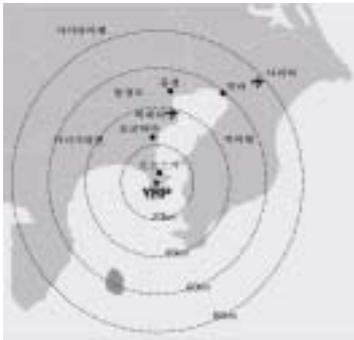
- R&D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구조를 첨단기술산업과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으로 고도화해야 하고, 하이테크 제품 수출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국가적으로는 기업의 연구비에 대한 조세감면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서울시 차원에서는 대기업과 연계된 R&D 센터의 구축전략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 인적자원

- 산학연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외국기업 유인장치를 마련하는 등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 이공계 석·박사과정 진학자에 대해 생활비 지급 등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공계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R&D 참고사례: YRP(Yokosuka Research Park)

NTT도코모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통신관련 R&D 센터로서 요코스카 리서치 파크를 조성하고 있다. YRP에는 주요 일본 메이커뿐만 아니라 Nokia, Ericsson 등도 입지해 관련 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YRP의 입지



YRP의 시설

주: 주요 입주 기업-NTT, NTT DoCoMo, Matsushita, Ericsson, Denso, Hitachi, Fujitsu, Mitsubishi, Toshiba, Canon, Sony/Ericsson, Nokia Japan, Sharp.
출처: YRP.

■ 정부정책

- 국가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여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 사업환경

- 외국계 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업종별 모임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 금융부문

■ 금융중심지 현황

분류	항목	현황
시장요소	개인금융자산규모 기업여신규모 주식·채권발행규모	기업여신규모는 일본과 중국에 크게 못 미치나, 개인금융 자산규모와 주식, 채권발행규모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타 국가에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음
	국제채권 발행규모	일본은 한국의 10배에 가까운 규모이며, 홍콩의 규모 역시 한국보다 큼
	금융업체 진출현황	홍콩이 가장 앞서며, 서울은 가장 뒤처짐
	증시 상장 외국기업 수	한국에는 상장된 외국기업이 없음
	FDI 규모	중국과 홍콩의 규모가 한국보다 큼
	GDP	자립적인 중심지가 되기에는 국내 GDP규모가 상대적으로 너무 작음
	기관투자자 자산규모	한국은 일본의 1/17 규모에 불과함
	M&A시장 활성화정도	국내시장에만 한정할 경우 매우 작음
	금융시장의 다양성	중국을 제외한 타 경쟁 도시에 비해 뒤떨어지는 편임
인적자원	재무전문가 풀(Pool)	현재의 싱가포르와 홍콩의 인력이 언제든지 상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인 서울의 경쟁순위는 바닥권임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수	싱가폴이 매우 앞서있는 상태임
정부정책	은행관련 규제 중앙은행의 정책적정성	규제가 많고 인허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일본을 제외한 타 국가에 뒤처짐
	사업환경	오피스 렌트비용
국제금융기구의 수		극히 적음
외환보유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시장요소

- 금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은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정비이다. 또한 금융상품의 규제방법을 포지티브 리스트방식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네가티브 리스트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 개인 투자자들이 보다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과 많은 영역의 위험자산에 관해 유용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지나치게 높은 은행의존도를 낮추고, 기능을 제대로 갖춘 채권시장과 증권시장을 육성하여 균형잡힌 금융시장구조를 조성한다.
-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계 펀드의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

■ 인적자원

- 외국의 자산관리전문가, 투자전문가 등 재무전문가들을 유인하기 위한 시책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시책들은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들과 병행되어야 한다.
- 국제금융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설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정부정책

- 시중은행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사업환경

- 아시아개발은행(ABD: Asian Development Bank), 국제결제은행(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유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물류부문

■ 물류중심지 현황

분류	항목	현황
사업환경	외국계 물류/항공사 진출 현황	서울에도 대부분 진출은 하였으나, 지역본사(RHQ)는 홍콩과 싱가포르에 집중
	공항물류 처리규모	홍콩과 동경에 이어 아시아 세 번째로 많은 물동량 처리
	국제선 승객수	홍콩, 동경, 싱가포르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승객수
	항만까지의 거리	서울은 항만도시가 아닌 데 반해, 북경을 제외한 경쟁 도시들은 그 자체로 항만도시임
	항만물류 처리규모	현재 잦은 파업으로 동경과 상해에 뒤쳐진 상태
	물류비용	경쟁국가에 비해 고비용구조임

■ 사업환경

- 다국적기업들은 세계적 물류전문기업과의 거래상 연계가 강하므로, Fedex, UPS, DHL 등과 같은 물류전문기업의 지역거점 유치를 위한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인천국제공항의 배후물류단지를 개발해야 한다.
- 국제물류 효율화와 물류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국내 전문 물류업체의 육성과 국제물류분야 전문 기능인력 양성, 외국의 물류전문기관과의 협력강화 등이 필요하다.
-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이 필요하고, 인천항, 평택항 등 수도권 항만의 지속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컨벤션부문

■ 컨벤션중심지 현황

분류	항목	현황
시장요소	컨벤션 개최빈도	싱가폴과 함께 가장 앞서 나가고 있음
	도시인접공항이용 외국인 입국자 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음
	소비자특성	혁신지향 및 자기실현지향 소비자의 비율이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높음

분류	항목	현황
인적자원	국제회의 오거나이저	국내에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국제회의 동시통역자 수	타 도시에 비해 부족한 편임
사업환경	호텔 수	절대적으로 부족함
삶의 질	대기오염도	싱가폴, 동경 수준에 많이 뒤떨어짐
	쇼핑의 매력	싱가폴, 동경에 뒤떨어짐
	외국인 커뮤니티의 활성화 정도	전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생활정보에 대한 접근성	

■ 시장요소

- 컨벤션중심지 추진에 있어서는 관광활성화가 필수적이므로,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혁신지향적인 소비자 기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산업관련 컨벤션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인적자원

- 국제회의 공인자격 획득업체에 대한 지원 및 국제회의 기획자의 국내진출을 정책적으로 장려한다. 국제회의 기획자격증 소지자와 국제컨벤션과의 연계서비스를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함으로써, 국제회의 기획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간접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사업환경

- 컨벤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등급의 호텔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호텔을 산업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호텔 건립에 대한 서울시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 삶의 질

- 공해방지를 위한 차량운행 규제 등을 통해 대기오염을 최소화한다.
- 외국인 전용 생활·문화안내 게시판을 운영하고, 외국인 생활정보잡

지 발행 등을 통해 외국인들이 쉽게 서울생활에 적응하고,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 외국인에 대한 인터넷 포털서비스 지원, 인터넷 커뮤니티 형성 지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상호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정책 토론

- 일 시: 2003년 9월 17일 13:30~17:00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명지빌딩 20층
주 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노무라종합연구소
주제발표: 요네야마 스쓰무(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지점장)
사회자: 양수길(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부회장)
토론자: 구로야나기 후미오(유니레버 코리아 부사장)
김정수(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맹일영(United Technologies Int'l 대표)
신창호(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장)
왕윤중(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이 참(Charm Smart 대표)
정태인(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기조실장)

구로야나기 후미오

유니레버는 세계 60개국 이상, 아시아에서도 15개 국가 및 지역에 진출하고 있다. 아시아의 RHQ(Regional Headquarters)는 싱가포르에 있으며 유니레버의 본사는 런던과 로테르담에 있다. 각 세계 사업부는 런던 및 로테르담에서 총괄하고 있다. 1997년에 아시아에 대한 총괄 사업본부를 아시아에 진출시키자는 의견이 나와서 결정된 곳이 싱가포르였다. 그 후 6년이 지나 사정은 변하였지만 당시 싱가포르가 선택되었던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창이국제공항’이 24시간 개방되어 있어 세계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아시아의 지리적인 중심에 있어, 리저널 헤드쿼터에 있는 오퍼레이팅 컴퍼니의 직원들이 가거나, 헤드쿼터의 직원이 오기에 시간적으로 유리하다는 지리적인 조건 때문이었다.

더불어 싱가포르의 통신 인프라가 당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앞서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공용어(公用語)로 사용하고 있고 도시 안내표기(Sign)도 반드시 영어와 중국어를 병기(併記)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각지에서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나아가 싱가포르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고, 특히 인터내셔널 스쿨, 영어를 기본으로 한 교육기반이 잘 정비되어 있었다는 점도 큰 몫을 했다고 본다.

이러한 몇 가지 점들을 고려하면 동경이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는 1시간 30분, 혹은 1시간 내에 싱가포르에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즉 당일 출장이 가능하여 지역미팅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한국을 잠재성이 높은 큰 시장이라고 보고 있다. 우리 업종은 소비자 상품이므로 국민의 인구와 생활수준의 크기가 시장의 크기를 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일본을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한국 시장의 크기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포함하더라도 상당히 큰 편이다. 즉, 우리

가 한국에 진출해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국내 사업이 크다는 것이다. 그 사업을 지탱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 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우선 인재가 상당히 풍부하다고 생각한다.

영어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면접을 해보면, 일본보다도 한국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 제 인상이다. 제가 여기서 4년이나 지냈는데 한국어를 한마디도 못하고도 지내는 것은 바로 그 덕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능력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이는 아시아의 어떤 국가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한국은 생활하기에 바로 익숙해지는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유럽과 북미를 포함하여) 중에서는 단신으로 부임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가족들이 서울에서의 생활이 그다지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에 있어서 한국은 주재지로서 그다지 인기가 있는 지역이 아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이 허브 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 참

서울은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26년 전과 비교할 때 자동차 수는 30만대에서 1,000만 대 이상, 인구는 2배 이상 증가하였고, IT산업의 발전이 엄청나게 빠르다. 10년 전만 해도 휴대폰을 보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서울 어디에서나 휴대폰이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은 동북아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들에서 현실적으로 취약한 점이 많다. 그러나 서울은 인구규모가 매우 큰 도시이고, 이것만으로도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의 세계화 수준은 미비하나 상당한 즐거운 요소를 가지고 있다.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면 독일은 재미없는 패러다이스 같으나,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다.

서울이 아시아의 문화중심지가 되었으면 한다. 서울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성장하였지만, 역사·문화적인 아이덴티티를 많이 상실하였다. 서울이 문화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매력이 있고 재미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서울이 아시아의 문화중심지가 되었으면 한다. 서울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성장하였지만, 역사·문화적인 아이덴티티를 많이 상실하였다. 서울이 문화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 매력이 있고 재미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개성을 살려야 하고, 문화를 다양화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국제적인 문화를 체험하기 힘들다. 예술의 전당은 다른 세계적인 오페라 하우스와 비교해서 경쟁이 안 된다. 더 많은 대형 공연장이 필요하다. 대형 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문화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조그만 광장, 공원들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의 음식문화를 프랑크푸르트와 비교하면, 프랑크푸르트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식당이 20개 정도 있는데, 서울에는 독일 사람이 운영하는 독일식당은 1개밖에 없다. 또한 서울에서는 국제적인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너무 적다. 국제적인 음식문화에 대한 대폭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음주문화 중 가장 고급문화가 와인이며, 이것은 세계 사람들의 대표적인 기호식품이다. 와인문화가 정착하려면 시장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서울에서는 와인 1병이 다른 국가보다 3배 이상 비싸다. 이는 관세, 주류세 등 보호주의적인 정책들이 많기 때문이다.

컨벤션센터, 국제교류센터 등은 국제적인 문화환경을 즐길 수 있어야 정착할 수 있다. 따라서 대폭 개방하고 좀더 세계적인 분위기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은 국제학교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다. 한국 사람들은 공부에 대한 열의가 많은데, 국제학교들이 한국 학생을 받아들인다면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을 위한 인프라

라가 되기 때문에 국제교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화 중심지로 발전하는 데는 언어가 중요하다. 외국어 실력은 갑자기 좋아질 수 없다. 외국어 실력의 개선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해야 하며, 서울시에서 어린아이들의 영어, 외국어 교육에 대한 시설과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민들의 외국어 실력이 대폭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2~3년 집중적으로 실시하면 모국어처럼 할 수 있으나, 대학생이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려면 20년이 걸린다. 어린아이들의 외국어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외국어 실력이 향상될 것이다.

서울의 잠재력은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중 인적자원의 잠재력이 가장 많다. 서울 사람들의 기질이 세계적인 중심도시가 될 수 있는 기질이다. 월드컵 때 시청 앞 붉은 악마 응원단들의 분위기에서 불행하게도 많은 외국인들이 없었지만, 함께 한 외국인들은 감동을 받았다.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배려, 즉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 팀이 지면 위로하기도 하고 같이 한국팀의 응원을 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많은 감동을 주었다. 이런 것들을 한 번 경험한 외국인들은 서울에 다시 오고 싶어진다. 서울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하면 할수록 서울의 매력이 더욱더 알려지고 중심국가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대와 축제문화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서울은 아직 국제적인 축제문화가 없는데, 다른 도시에서는 매해 카니발이 열리고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고 있다. 서울이 이러한 것을 갖추면 중심도시로서 잠재력을 더욱 많이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맹일영

3가지에 대해서 각론 중심으로 우선 서울의 외국 사람들이 흔히 얘기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좋은 점은 블루칼라 노동비용은 높고 열악하지만, 엔지니어, 전문적인 기술분야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생산력이 높고 생산비용이 낮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가 R&D 중심도시로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하는 좋은 점은 무엇인지, 서울의 나쁜 점은 무엇인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숙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겠다.

서울의 좋은 점은 다음과 같다.

- 서울 같이 자연적으로 좋은 환경을 가진 도시가 없다. 산과 강을 동시에 같은 지역에 가지고 있는 수도는 한 곳도 없다. 서울은 북한산, 남산 등의 산과 한강을 가지고 있고 자연환경이 수려한데,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촘스롭고 보기 싫고 교통이 막히고,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고 공해가 있는 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 우리나라의 노동문제(노사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만, 좋은 점은 블루칼라 노동비용은 높고 열악하지만, 엔지니어, 전문적인 기술분야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생산력이 높고 생산비용이 낮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가 R&D 중심도시로서 가장 중요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이다.
- 물류 측면에서는 천혜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중국을 제3의 세계 시장으로 보았을 때, 한국을 거쳐가도록 지리적인 이점을 어떻게 우리가 실용화하느냐가 숙제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는 샌드위치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즉, 일본·미국-우리나라-중국·동남아시아의 중간에서 좋은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는 아직 50년 정도 더 발전해야 과실을 수확할 수 있는 성장기의 무서운 아이 상태이며, 일본은 시장 규모는 크지만 포화상태가 되어서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별로 없다. 이에 비해 한국은 과거 50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20년~30년 동안은 결실을 맺는 열매가

많이 있다. 구체적으로 IT, 나노테크놀러지 비즈니스 등이다.

서울의 문제점 및 단점은 다음과 같다.

- 노동의 유연성(Labor Flexibility)인데, 노사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투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잠재력이 있는데, 왜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잘하더라도 태양처럼 떠오르는 중국이 곧 일어나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앞으로 필리핀, 동남아시아가 발전할 것이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계속적으로 급성장하는 나라가 많을 것이다.
- 가장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자기 가족, 친척에게는 무조건 다 줄려고 하는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면 2년 전에 ‘Visit Korea’라는 광고를 한국 내에서 광고하는 데 예산의 90%를 사용하였다. 한국을 모르는 다른 나라나 기업에게 한국을 광고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즉, 모든 앙케트, 심포지엄을 한국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뉴욕, 런던, 파리 등의 장소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혀 한국을 모르고 있는 기업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도외시되어 있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 서울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주인공이 누구인가? 중국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 동남아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탁상공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우물안 개구리’식,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탈피하고 초월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이다.
- 한국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좋은 점을 외국에 마케팅해야 하며, 한국을 팔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 한국을 마케팅하기 위한 자료들 중 영어로 된 것이 거의 없다.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외국어로 된 제대로 된 자료가 필요하다.

왕윤중

최근 유사한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다. 현재 서울이나 한국을 동북아의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과 현재의 여건, 문제점 및 개선점 등은 다 알고 있지만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우리가 세계로 성장해나가는 데는 여러 번의 전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글로벌 도시로서 발전해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계기는 김영삼 대통령 때, ‘세계화’ 슬로건을 걸고 OECD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을 선진화시키려고 노력한 것이다. 이때 우리의 시스템이 선진화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외환위기로, IMF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와 제도의 변화가 있었고 대량해고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구조조정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 세 번째는 현 정부의 개방과 개혁 정책으로 신자유주의적인 뿌리를 가지고 세계화를 지향하면서 국내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첫 번째,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것이 비즈니스 허브를 표방하지만, 적절한 용어는 네트워크고 게이트웨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동북아란 무엇인가? 중국은 하나가 아니라 광둥, 심천, 홍콩, 상해, 북경, 동북부 등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실체를 이해해야 한다. 중국의 동북부가 개발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북동러시아가 개발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동북아의 새로운 개발의 동력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왜 동북아에 대한 진전이 안되고 있는가? 이념관계도 있지만 동북아

중국의 핵심 정책은 남방정책이고, 중심이 상해 이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동북아 정책을 하고는 싶지만 리더십을 보이는 데 제한이 있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동북아 프로젝트는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되었는데, 북한을 포함해서 동북아지역(중국 동북부, 러시아 시베리아)을 엮는 프로젝트에 북한이 관문으로서 참여하고 한국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핵심 정책은 남방정책이고, 중심이 상해 이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동북아 정책을 하고는 싶지만 리더십을 보이는 데 제한이 있다. 중국에 있어서 금융은 우선순위가 아니고, 물류에 우선순위가 있다. 중국의 경우 금융허브가 될 수 없는 조건이 있는데, 이는 4대 국유 은행이 2/3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부실채권이라는 점에서 금융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심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환위기를 통해서 부실채권을 처리하였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이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이 되는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다.

홍콩은 동북아 프로젝트를 파이낸싱하는 금융기지로서 역할은 역부족이다. 사스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홍콩에 있는 많은 헤드쿼터들이 싱가포르로 가고 있다. 홍콩은 수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는데, 이는 홍콩 은행들의 채권들 중 중국에 투자한 상당 부분이 부실채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향세가 전망된다.

싱가폴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겪고 있는데,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투자했던 자금들이 부실화되고 있다.

결국 상대적으로 볼 때,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카고대학 경영학과의 라잔에 의하면, 20세기 초반 세계에서 가장 큰 주식시장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프랑스 파리인데, 현재는 런

던, 뉴욕에 금융시장을 거의 다 뺏긴 상태이다. 이는 금융위축이 재무부의 관료들과 위여 금융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 규제완화와 개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금융위축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 결과이다. 또 다른 예로 1960년대 뉴욕시장이 죽었을 때, 미국에서도 금융규제가 심했으며, 이때 유럽시장과 런던시장이 뜨기 시작했다. 탈 규제를 위해서 미국 자본이 유럽으로 갔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개혁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제를 떨쳐버렸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개혁과 개방은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다.

김정수_

중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인식의 문제이며, 우리 스스로가 너무 비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런 얘기는 많이 했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대부분 “물류중심지, 비즈니스중심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현재 유치하고 있는 기업이 안 나가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반응을 보인다. 한국의 경제사정이 안 좋고, 대외관계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실제적인 여건도 경쟁국과 비교하기엔 취약하고 열악한 것이 많아서 패배주의나 냉소가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는 점에서 여건이 안 좋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열악한 여건이라든가, 규제라든가, 노사문제라든가 이런 것보다 심각한 문제는 여건이나 제도를 바꿀 사람들의 생각, 의식이다.

최근에 WTO 무역협상, 한국-칠레 무역협상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나 국회의원의 반응을 보면, 외국 사람이든, 외국 돈이든 외국 것만 보면 일단 싫은 인식이 너무 뿌리깊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여건도 안 좋고, 우리 생각도 안 좋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많다. 물류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여건은 맘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문제는 규제를 바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인데, 이는 규제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즉, 동북아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장애는 사람들의 의식이다.

규제를 바꾸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인데, 이는 규제 바꾸기 전에 규제를 바꾸는 역할을 하는 사람의 생각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즉, 동북아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큰 장애는 사람들의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신창호

유럽의 대도시들은 대부분 물류 네트워크가 잘 발달된 곳에 새로운 문화라든지, 새로운 경제들이 창조되고 성숙되면서 발전하였다. 한번 발전된 도시들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해왔는가? 시대의 상황에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발전 또는 쇠퇴의 길을 걸었다.

21세기 초에 리더가 될 수 있는 창조적인 도시는 어디인가? 현재 OECD 국가의 대도시들이 21세기 초반까지는 세계적인 중심지로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몇 개의 도시들이 문화, 기술, 산업, 직종을 창조하는 도시들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아시아의 국가들이 그 대열에 가세하지 않을까? 창조적인 대도시의 발전을 이룬 국가들이 주는 시사점은 국가의 의사결정이 상당히 유연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하나의 큰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서울의 발전을 억제하면 지방이 발전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먼저 지방을 발전시킨 다음 수도권 규제를 해지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우물안 개구리 식의 생각이다.

1980년대 초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만들어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해왔다. 그 법들을 만들 때 영국(1940년대)과 일본(1960년대)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는데 영국은 1980년대, 일본은 작년에 폐지하였다. 우리나라

서울에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 무허가 공장이 있는 이유는 시장에
가깝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수익이 없어도 땅값이
남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라는 동북아 중심지로서 나아가자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 개개인, 기업들, 지자체 모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각 지방이 경쟁에서 생존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은 그동안 우리나라 발전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왔다. 서울이 성장하면 지방이 동시에 성장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울, 수도권,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Win-Win 전략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태인

네트워크와 기술지향에 대해서는 100% 동의한다. 동북아 프로젝트의 제일 과제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동북아의 모든 국가들이 이익을 보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물리적으로 동북아 철도, 가스·에너지 네트워크, 더 나아가서 통신 네트워크나, 금융협력, 환경협력, 과학기술협력이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문제이다. 획일적인 규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지방을 위해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계획적 관리로 바꿀 것이고, 서울의 흡인력 중에 투기적 수요, 가수요를 없애는 것으로 규제를 바꾸고 있다.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모두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예상들이 틀릴 것으로 생각한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투기수요를 없애는 것이다. 서울에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 무허가 공장이 있는 이유는 시장에 가깝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리 수익이 없어도 땅값이 남는다는 생각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공장들이 이전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은 고용보다는

수익성을 높여야 하고, 지방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단위 공장의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은 R&D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률시장이나 학교시장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공교육 문제가 있어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수도권에 외국대학을 유치할 계획이다.

요코스카를 능가하는 내셔널챔피언 클러스터가 6개 가량 수도권에 생길 것이다. 양재동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길, 인천공항에서 일산으로 해서 개성까지 이르는 길에 각각 3개씩, 6개를 유치할 것이며, 기술융합적으로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텔레매틱스와 게임시티 계획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게임이기 때문에 세계의 게임중심지가 되기 위한 게임시티 계획을 문화관광부와 동북아추진위가 같이 발표할 예정이다.

물류중심은 경제자유구역, 부산, 인천, 광양을 중심으로 발전되겠지만, 내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도 굉장히 많다. 물류도 7대 과제가 발표되었지만, 물류가 성공하려면 물류거점 부근에 복합적인 배후단지가 발전되어야 한다. 광양이 제일 부족한 실정이라서 이를 설계하고 있다.

금융은 조건도 가장 나쁘지만, 금융중심의 여러 가지 정책 역시 가장 부족하다. 런던이나 뉴욕 같은 글로벌센터를 만드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산관리업·구조조정업 등의 동북아 개발금융과 관련된 특화센터를 만든 다음에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지역센터로 발전시키고, 그 이후에 글로벌 센터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내부의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개방은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를 만들며, 내부의 개혁은 국민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 투자결정 요인에서 비용부분은 중국을 따라갈 수 없으나, 조세라든가 투자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 경영환경 개선, 생활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는 재

노사관계를 Win-Win 게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합의하여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의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경부와 산자부가 경영환경개선 3개년 계획, 생활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외자유치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사회·정치적 요인이다. 노사관계라든가, 외국인에 대한 대외 개방성 등은 굉장히 개선하기 어렵지만,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다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실례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대립적 노사관계가 문제이다. 양자가 손해보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를 Win-Win 게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주민과 합의하여 사회통합적인 노사관계의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자_

전반적으로 제시한 방향이 참신하다. 동북아 경제의 중심 개념을 풀어 나가는 단초를 네트워크의 중심화와 지식집약산업화로 추구하자는 명쾌한 논리로 시작해서 R&D 기능을 활용해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컨벤션 센터가 되자는 것은 새로운 감이 있다고 생각된다.

금융센터가 되기 위한 과제를 보면 대개 금융자본시장을 개방하고 거기에 관련된 회계감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선진화하고 국제기준에 맞추는 제도개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금융센터로 부상하려면 장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를 들면 10년이 걸린다. 그러나 그것은 10년 있다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이를 착수하여 중요한 과제는 1~2년 안에 끝을 내야 하고, 따라서 오히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동북아 경제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과제는 국내외 투자를 촉진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과제가 너무 실물적이고 물리적인 투자 쪽에 치우친 것 같은데 균형을 잡아서 제도개혁과 국제화를 좀더 강조해야 된다.

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개혁·개방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러한 제도 개혁, 대외 개방이 동북아 경제중심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류, R&D 센터를 위한 물리적인 투자와 산업·정책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소극적, 부분적인 정책일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단으로서 금융센터를 목표로 내세워서 이것을 위한 여러 가지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 과제가 너무 실물적이고 물리적인 투자 쪽에 조금 치우친 것 같은데 균형을 잡아서 제도개혁과 국제화를 좀더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센터가 중요한 것이다.

발표 중에 부문별 과제를 강조하고 시장환경 전반을 나타내는 공통과제를 넘어갔다. 어떠한 부문의 허브가 되더라도 꼭 해야만 되는 공통과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수도권 정책이 그 동안 억제 및 규제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 그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생활환경이 열악하다는 것, 외국인 위주로만 말을 했지만 내국인한테도 똑같이 혜택이 가는 서민적인 생활환경 자체를 국제화하는 것, 그리고 문화적인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생활환경 문제와 관련시켜 볼 때, 청계천 복개공사 등은 참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들을 만나 보면 불평을 많이 한다. 시내에서 운전을 하고 싶은데, 운전매너가 너무 나빠서 운전을 하는 것이 두렵다. 또 주차를 아무데나 하고, 당국도 단속을 안 하는데, 이것은 준법의식에 관한 문제이며, 이러한 시민의식이 국제화 과제로 강조되어야 한다.

수도권정책은 이제는 서울시를 첨단산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바꾸면서
전통적인 산업을 지방으로 재배치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 재배치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외국 사람들이 정보화를 아쉬워한다. 일반적으로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1~2년을 살려면 언어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렵다. 또 생활을 즐기는 데에도 언어의 제약으로 굉장히 불편해 한다. 외국인들이 원하는 것이 외국 국제방송을 케이블TV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인데, 현재 국내에서 접할 수 있는 외국 방송은 딱딱한 CNN 방송, AFKN, 아리랑방송밖에 없는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위성을 통해 1,000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케이블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면 한국에서 사는 데 훨씬 편해진다. 각종 생활정보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교통사고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운전면허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병원은 어디에 있는지 등 너무나 당연히 공짜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외국인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즉, 종합 생활정보의 포털사이트가 필요하다.

수도권정책은 이제는 서울시를 첨단산업 위주로 산업구조를 바꾸면서 전통적인 산업을 지방으로 재배치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 재배치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Win-Win 정책으로 모든 지방이 다 경제발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일본의 아까마쓰라는 경제학자는 동아시아의 경제발전 모델을 날아가는 기러기 모델이라고 했다. 일본이 가장 앞장서서 산업발전을 해나가면 일본보다 조금 덜 발전된 한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이 중진국으로 발전하고, 이 나라들이 발전하니 까 그 다음에는 이보다 더 조금 덜 발전한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이 산업화를 차례차례 출발해나가면서 기러기 떼처럼 층층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델을 날아가는 기러기 모델이라고 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서울이 가

한국이 다른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 네트워크 중심에 서울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장 앞장서서 나가는 대장 기러기가 되고, 그 뒤를 다른 지방들이 줄줄이 따라가는 'Frying Geese Model of Development'를 지역간에 적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문제로서 서울 얘기를 자꾸 했는데, 행정적인 서울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얘기하는 것인지 개념적으로 분명치가 않다. 결국 수도권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여기서 추구하는 정책을 서울시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 행정기관이 하나의 연합된 행정을 추진하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서울시 정책방향과 지금 추진되고 있는, 특히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특구 개발정책간에 상당한 긴장과 경쟁관계를 느낄 수 있다. 서울로 R&D 기능과, 금융기능을 유치하자는 등의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데, 지금 인천에 만들어지고 있는 경제특구가 바로 그런 부분에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특구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나갈 것이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조정해나가야 하는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건전한 경쟁관계를 활용해나가는 것이 전략이라고 생각되지만, 각론에 가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것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얘기를 할 때에는 대외경제협력도 중요한데, 한국이 다른 여러 나라들과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 네트워크 중심에 서울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일 FTA를 이룬 큰 거시적인 전략에서 시급성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FTA, 그리고 아세안, 동남아 아시아와의 FTA, 미국과 멕시코의

FTA 등등 가능한 대로 추진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디를 가나 걸리는 것이 개방문제이다. 중국, 동남아, 멕시코와 FTA를 하면 농업 개방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칸쿤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결국은 농업개방을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촌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 농촌과 도시 간의 Win-Win 정책을 구상해서 농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회적인 합의 형성과 이것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해야 할 것보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이와 같은 비전을 추구해나갈 때,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역할 조정이 잘 되어야 한다. 정치적으로 힘든 개혁, 개방을 중앙정부가 추진할 때, 서울시가 그것을 촉구하는 옹호세력으로서 로비그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청의 행정능력도 점점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국가이미지 홍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서울시에 서 그 점에 착안을 해서 서울시의 이미지를 촉진하기 위한 구호를 만들었다. 바로 ‘HI Seoul’인데, 국제감각이 있는 사람이나, 특히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다. ‘HI Seoul’이란 외국 사람들이 서울한테 인사하는 것이지, 서울시민이 국제사회에 내놓는 이미지, 어떤 구호가 절대 아니다. 서울시민이 국제사회를 향해 말하는 것은 Dynamic Seoul, Dynamic International Seoul과 같이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고, 서울시민의 의지를 나타내는 구호가 되어야 한다. 외국인들이 여러 번 영자신문을 통해서 지적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부서에 있는 분들이 우선 국제감각을 가지고 행정능력을 국제화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드리는 것이다.

■최종 정리■

요네야마 스쓰무_

오늘 소개해드린 것은 연구의 성과, 즉 하나의 사실의 확인일 뿐이다. 하지만 연구만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하나의 디딤돌로 하여 계획하고 실행해나가면 그런 단계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제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R&D, 물류, 컨벤션 분야에서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가 되고자 하는 것은 훌륭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중심도시가 된다는 것은 한국 내는 물론이거니와 해외에 있어서도 서울에 손님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여기서 다음 각 항에 대해 주의 깊게 논의해 보았으면 한다. 첫째, 서울에 있어서 손님이라는 것은 누구인가? 둘째, 손님은 어떤 욕구(Needs)를 갖고 있는가? 셋째, 서울은 그 욕구에 대해 어떤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대응해가지 않고서야 서울이 아시아의 중심도시가 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최근 일본의 하이테크 제조업이 한국 투자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5년 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정부에서는 토지, 공업단지, 도로, 공항이 있다고 말하고, 그것이 일본 기업의 욕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지금 한국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 기업의 필요는 한국의 일류기업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즉 삼성, 엘지, 현대자동차와 거래하고 싶거나 거래를 늘리고 싶어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한다. 이 건 사실이다. 이러한 손님의 욕구를 세세하게 파악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 데는 외국의 본사에서 60~70%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현지지사는 약 30~40% 정도를 가지고 있다.

구로야나기 후미오

일본에서는 장기 불황의 결과 제도적인 모순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구조변화에 대한 필요성도 높게 인식되었고, 모든 수준에서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일반 시민생활에 있어서도 새차를 사면 7년 정도 사용한다. 돈의 씀씀이도, 여성의 역할도 바뀌어왔다. 말하자면 사회는 보다 시민화되고, 비차별적이고 친절한 사회로 바뀌고 있다.

방금 전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배타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찬성하는 바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행동 면에서 추가하자면 한국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즉 누군가가 결정하는 것을 기다리는 경향, 그리고 결정시의 불투명성 등은 역시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

맹일영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세 가지 참고할 점은 첫째, 외국의 본사에서 60~70%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 지사에는 약 30~40%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투자를 하는데 가장 걸림돌은 한국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좋게 의식을 바꾸고, 결정이 되고, 실현 방법이 나오더라도 손님이 안 오는 빈 잔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수요자가 누구인지, 누가 주인공인지, 고객인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인 집단이기주의(NIMBY Syndrome)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 자기 것만을 위해서, 아주 스마트하게 아주 교묘하게 자기 영토만을 계속해서 지키려는 이러한 의식의 개혁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사상으로 우리가 중심이 되려면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되려면 동북아시아에 많은 것을 제공해줘야 하고,
동북아시아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한다.

이 참_

기본적인 사상에 문제가 있다. 국제적인 중심도시가 되고자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외국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 우리한테 많은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 강하다. 많이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강하다. 반대로 외국에다가, 세계에, 동북아시아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사상으로 우리가 중심이 되려면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되려면 동북아시아에 많은 것을 제공해줘야 하고, 동북아시아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한다. 한국에 홍익인간 사상이 있는데, 한국문화의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홍익인간을 사상적인 배경으로 하여 모든 정책의 추진 방향을 잡는다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중심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왕윤중_

중국이 부실채권이 많다고 했는데, 국유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35% 정도 된다. 나머지 65%는 자본주의가 된 부분이고, 이 부분에 외국인투자가 집중되어 있다.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도 중국에는 외국인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중국은 지금 현재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변화하고 있는 체제전환국가이며, 또 한편으로는 이중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도·농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며, 도·농간의 격차가 언제 해소될 것인지가 많은 경제학자들의 관심사이다. 달리 말하면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지난 10년간 하나도 오르지 않았

바로 동북아 문제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며, 우리가 중국이나 우리의 주변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공생하고 협력할 것인가에 해답이 있다.

다. 앞으로도 20년간 중국의 비숙련 노동자 임금은 안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4억에 달하는 무한의 노동력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중국에 이길 수가 있는가?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먹을 것을 찾을 것인가?

바로 동북아 문제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며, 우리가 중국이나 우리의 주변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공생하고 협력할 것인가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태인

서울을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한 조건들이 바로 수도권 계획적 관리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새마을운동, 국민의 정부 시대에 제2건국위 윤리 운동을 했는데, 새마을운동은 성공했고, 제2건국위 윤리 운동은 실패했다. 한편으로는 설득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실제로 물질적으로도 이익이 된다는 사례들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클러스터 이론에서는 이러한 것을 Network Externality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류를 해서 다 같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것이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 문화적, 학술적 교류도 실제로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태산을 오르는데, 혼자 오르기는 힘들다. 한·중·일이 상호협력과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 올라가야 되고, 이런 맥락 속에서 3국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창호_

지식기반사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산업구조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역할을 누가 할 것인가? 이러한 활동을 하는 주체는 주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은 굉장히 까다롭고 고급의 인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사람들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의 동북아 경쟁력을 얘기할 때, 국내적으로는 다른 지방도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대외적으로는 동북아 다른 대도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동감한다.

사회자_

동북아 중심지가 되는 것은 태산을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로인데, 오르지 않고 높다고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빨리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중국, 일본 등 다른 나라는 모두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만 바닥에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올라야 한다.

태산을 오르는데, 혼자 오르기는 힘들다. 한·중·일이 상호협력과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 올라가야 되고, 이런 맥락 속에서 3국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협력을 잘 하려면 소위 배타적인 국민감정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일본과 그렇다. 현재 한·중·일 무역이 3각 관계를 이루면서 종합적으로 모두 후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여 미래지향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의 장벽을 극복해야 한다.

용어 정리

■ 브로드밴드

기존의 내로우밴드(narrowband)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말로는 광대역으로 번역됨. 브로드밴드 웹은 일반 가정까지 고속 광대역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미래형 웹으로, 고품질의 소규모 멀티미디어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한 기술로 인식되고 있음.

■ 하쿠호도(博報堂)

일본 제2의 광고대행사로 부설 “생활종합연구소”에서 마케팅과 관련한 각종 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 AIIC(국제회의통역사협회, Association Internationale des Interprètes de Conférence)

1953년 파리에서 창립된 AIIC는 현재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81개국의 약 2,500명의 전문통역사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음.

■ AIMR(Association Investment and Research)

미국의 투자관리·연구협회

■ BIS(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1930년 헤이그협정에 의하여 각국 중앙은행 간의 협조를 증진하고 국제금융 안정을 위한 자금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세계 외환보유고의 10%를 상회하면서 약 90개국에 금융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였으며, 1999년 현재 15억 금(金)프랑을 보유하고 있음. 국제결제은행은 각국 중앙은행 이사진과의 정기적인 회합을 통하여 국제통화정책 협력과 국제자본시장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IMF)과도 긴밀한 협조하에 활동함.

■ CB Richard Ellis

미국의 세계적인 부동산 자문·투자·자산관리회사

■ CFA(Chartered Financial Analyst)

미국의 투자관리연구협회(AIMR: Association for Investment Management and Research)가 부여하는 자격으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음. 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에 걸쳐 3단계의 시험에 순차적으로 합격해야 하고, 동시에 최소 3년 간의 투자관련 분야 실무경력을 인정받아야 함. 따라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국제적으로 재무분석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됨.

■ CIF/FOB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cost insurance and freight): 도착항까지 모든 운임과 해상보험료까지 판매자부담(FOB + 해상운임 + 해상보험료). ex) CIF New York U.S \$1,000

FOB(본선인도가격, free on board): 선적항의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까지 판매자부담. ex) FOB PUSAN U.S \$1,000 per case

■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TOEFL, GRE, GMAT, SAT, TOEIC 등 영어 인증 및 자격시험 주관단체

■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세계은행(World Bank)이라고도 하며, 1944년 브레턴우즈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에 따라 국제연합의 전문기관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후 각국의 전쟁 피해 복구와 개발을 위해 1946년에 설립됨. 주요 목적은 ① 가맹국의 정부 또는 기업에 융자하여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② 국제무역의 확대와 국제수지의 균형을 도모하며, ③ 저개발국(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것임.

■ ICCA(국제컨벤션협회, International Congress & Convention Association)

1963년에 설립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회의 전문기구인 ICCA에는 세계 80개 국가의 정부관광기구, 컨벤션센터, 호텔 등 700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음.

- IFC(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1956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임.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의 자매기관으로,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의 발전과 민간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촉진하여 세계은행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됨. 정부의 지불보증 없이도 대출이 가능해 IBRD를 보완해주며, 민간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융자해주고 주식에도 투자함.
- IMF(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무역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제금융기구
- IMD(국제경영개발원,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스위스 로잔에 있는 IMD는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이 운영하는 특수경영대학원으로 1979년부터 매년 세계 46개국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음.
- ISDA(국제스왑과생상품협회,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스왑이란 상호교환하는 것으로 각자 자신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이나 거래를 상대방과 교환하여 서로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기법임. 스왑은 각국 시장의 불안정성, 외환통제, 세금차별 등에 대처할 수 있게 하며, 자본시장간의 금리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도 가능케 함. 1985년 ISDA를 구성하여 스왑규정을 작성했음.
- ISI(국제통계협회, 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통계방법의 개선과 보급을 위하여 1885년에 설립한 국제단체
-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으로, 과학기술·문화사업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단체들의 과학기술·문화사업을 지원 및 후원하고 있음.
- Munich Re Group
 1880년 설립된 독일의 손해보험회사로 국제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주요 사업은 재보험(再保險), 개인이나 기업의 손해보험, 재해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자산운용 등임.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기구

■ PwC(PricewaterhouseCoopers)

1998년 7월 1일 'Price Waterhouse'와 'Coopers & Lybrand'가 합병하여 만든 세계 최대의 회계감사 및 종합컨설팅 네트워크

■ S&P(Standard & Poor's)

세계적인 미국의 신용분석 및 신용정보기관으로, Moody's Investors Service·Fitch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으로 꼽힘.

■연구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선임연구위원)
정병순 (부연구위원)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박은철 (연구원)
용해경 (연구원)

NRI 서울

Yoneyama Susumu (지점장)
김남훈 (Group Manager)
한상훈 (Consultant)
문지원 (Consultant)
최자령 (Consultant)

NRI 동경

Kusano Keiichi (Senior Consultant)
Kitamura Michio (Senior Consultant)
Ishii Ryoichi (Group Manager)

NRI 상해

Matsuno Hiroshi (지점장)
Helen Zhu

세계도시 서울은 가능한가

— 동북아 6대 도시 서울, 동경, 홍콩, 북경, 상해, 싱가포르 비교 분석

초판 인쇄일: 2003년 12월 20일

초판 발행일: 2003년 12월 26일

펴낸이: 백용호

펴낸곳: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소: 137-071 서울 서초구 서초동 391

전화: 02-2149-1021

팩스: 02-2149-1025

www.sdi.re.kr

표지디자인: 정보환

편집 및 제작: 다이이씨에스

값 6,000원

ISBN 89-8052-306-8 93540